통일부

탈북 청소년 대상통일교육 방안 연구

– 도덕적 실증 연구를 중심으로-

박보람

한국교원대학교

제1장 서 론 ····· 1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 2

제2절 관련된 국내외 연구 실태와 동향 ····· 4

제2장 연구문제 ····· 6

제3장 방법 및 절차 ····· 7

제1절 조사 기간 및 대상 ····· 7

제2절 측정 도구 ····· 8

1. 청소년 도덕 지능 검사 ····· 8
2. 한국판 HEXACO 성격 검사 ····· 9
3. 성격 강점 검사(KICS) ····· 10
4. 자기성찰지능 척도 ····· 11

제3절 자료 분석 ····· 12
1. 인구통계학적 특성 ····· 13
2. 요인 구성 타당도과 응답 신뢰도 ····· 14
3. 기술 통계분석 ····· 21
4. 출생 국가별 도덕적 성격 ····· 23
5. 중국 거주기간 및 한국 정착기간과 도덕적 성격 ····· 24
6. 소속 학교별 도덕성 성격 ····· 30
7. 성격 특성과 도덕 지능과 간의 상관분석 ····· 32

제4장 결과 분석 ····· 34
제1절 탈북 청소년의 도덕적 성격 특성 ····· 34
1. 공정성에서 높은 도덕지능 발휘 ····· 34
2. 원만성에서 높은 성격 특질을 발휘 ····· 35
3. 용기에서 탁월한 강점 발휘 ····· 37
4. 자기조절을 위한 끊임없는 성찰 ····· 39
제2절 탈북배경 및 정착환경에 따른 도덕적 성격 특성 ····· 41
1. 출생 국가와 도덕적 성격 ····· 41
2. 중국 거주 기간과 도덕적 성격 ····· 43
3. 교육 환경과 도덕적 성격 ····· 45

제5장 결론 및 제언 ····· 50
제1절 탈북 청소년의 도덕적 성격 강점 ····· 50
제2절 탈북 청소년 교육적 지원 방안 ····· 52

참고문헌 ····· 55

표 목차

< 표 1 > 조사대사자 인구통계학적 분포 ····· 13
< 표 2 > 도덕 지능 요인 구성 타당도과 응답 신뢰도 ····· 15
< 표 3 > HEXACO 성격 요인 구성 타당도과 응답 신뢰도 ····· 16
< 표 4 > 성격 강점 검사도구의 타당성과 응답 신뢰도 분석 ····· 17
< 표 5 > 자기성찰 검사도구의 타당성과 응답 신뢰도 분석 ····· 18
< 표 6 > 사회적바람직성 검사도구의 타당성과 응답 신뢰도 분석 ····· 20
< 표 7 > 연구 대상자의 도덕적 성격검사 기술통계 분석 ····· 21
< 표 8 > 도덕 지능에서 출생 국가 간 차이에 대한 T검정 결과 ····· 23
< 표 9 > 중국 거주기간과 도덕지능 일원배치분산분석 ····· 24
< 표 10 > 한국 정착기간과 도덕지능 일원배치분산분석 ····· 27
< 표 11 > 도덕 지능에서 학교 간 차이에 대한 T검정 결과 ····· 30
< 표 12 > 도덕지능과 성격 특성 간의 상관분석 ····· 32

그림 목차

< 그림 1 > 탈북 청소년의 도덕지능 ····· 34
< 그림 2 > 탈북 청소년의 HEXACO 성격 특질 ····· 35
< 그림 3 > 성격 특질과 도덕지능 간의 상관관계 ····· 36
<그림 4 > 탈북 청소년의 성격 강점 ····· 37
< 그림 5 > 성격 강점과 도덕지능 간의 상관관계 ····· 38
< 그림 6 > 탈북 청소년의 자기성찰지능 ····· 39
< 그림 7 > 자기성찰지능과 도덕지능 간의 상관관계 ····· 41
< 그림 8 > 출생 국가와 도덕지능 ····· 42
< 그림 9 > 출생 국가와 성격 강점 ····· 42
< 그림 10 > 출생 국가와 자기성찰지능 ····· 43
< 그림 11 > 중국 거주기간과 도덕지능 ····· 44
< 그림 12 > 중국 거주기간과 자기성찰지능 ····· 44
< 그림 13 > 한국 정착기간과 성격 특성 ····· 45
< 그림 14 > 교육환경과 도덕지능 ····· 46
< 그림 15 > 교육환경과 HEXACO 특질 ····· 47
< 그림 16 > 교육환경과 성격 강점 ····· 48
< 그림 17 > 교육환경과 자기성찰지능 ····· 49

제1장 서 론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 청소년은 그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리고 그들이 재학 중인 학교 수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교육부(2016) 보도 자료에 따르면, 탈북 청소년 수의 경우 2010년 1,417명 → 2012년 1,992명 → 2014년 2183명 → 2016년 2,517명으로 증가하였다. 반면 탈북 청소년의 학업 중단율은 2010년 4.9% → 2012년 3.3% → 2014년 2.5% → 2016년 2.1%로 감소해 왔다.

우리 정부는 탈북 청소년이 학교에 안정적으로 적응하여 성장·자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통일부는 「2017년 통일부 업무계획」의 10대 주요 과제에 '사회통합형 북한이탈주민 정책'과 '미래를 준비하는 통일교육 추진'을 포함하고, 미래 통일 한반도 주역 양성을 위한 청소년·대학생 통일교육을 강화를 계획하고 있다. 교육부는 탈북 청소년이 우리 사회에 통합된 일원으로 적응하고 통일 시대의 인재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17년 탈북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계획은 '맞춤형 교육 강화', '진로·직업교육 내실화', '교육지원 기반 공고화'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탈북 청소년 맞춤 교육 강화와 관련하여, 한국어 교육, 심리상담 지원, 맞춤형 멘토링을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통일시대를 대비한 우리 정부의 탈북 청소년 지원과 함께 탈북 청소년의 안정적인 한국사회 적응과 정착을 위한 심리적 및 교육 지원 방안에 대한 학술 연구는 꾸준히 축적되어 왔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는 동일한 연구 자료를 근거로 재생산된 경향이 있으며 탈북 청소년의 특성에 대한 현상학적 접근과 질적 접근이 중심을 이루는 경향이 있었다. 종래 연구는 연구 대상을 주로 탈북 주민 위주의 기성세대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그러나 학령인구 유입 증가에 따라 탈북 청소년의 학교교육 적응, 진로교육 지원, 심리적 적응을 위한 정책 및 교육 지원 방안 마련이 절실한 과제로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통일 과정 및 통일 이후를 대비하여 사회통합을 위한 남북한 학생의 인성 및 성격 특성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통한 객관적 연구 성과 축적이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통일을 대비한 학문적, 실천적 요구를 고려할 때 탈북 청소년의 인성 및 성격 특성을

다양한 표준화된 검사 도구를 활용하는 실증적 연구가 수행될 필요성이 크다. 탈북 청소년의 성격 특성을 파악하고 특성에 적합한 교육, 지원, 정책 의제 형성이 필요한 것이다. 특히 성격 특성에 대한 접근에서는 탈북 청소년과 남한 청소년의 성격 특성 비교 분석뿐만 아니라 탈북 청소년 내에서의 차이 분석이 중요하다. 그래야만 탈북 전 문화맥락과 탈북 후 문화맥락을 고려한 지원과 교육 방안 적용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적 속성이 강한 탈북 청소년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탈북 청소년의 도덕적 성격 특성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수행하여 통일을 대비한 사회통합 정책과 통일교육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는 데 있다. 특히, 지금까지 제대로 연구되지 않았던 탈북 청소년의 도덕적 성격 특성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수행함으로서 객관적이고 신뢰도 높은 자료를 근거로 탈북 청소년의 도덕적 특성에 적합한 통일교육 방안을 제안하는 데 있다.

도덕적 성격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인간 성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요구된다. 인간의 성격은 단일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 성격에는 선천적인 성격 특질 차원과 후천적인 인지 구조 차원이 있다. 성격 특질이 생물학적, 유전적으로 결정되고 잘 변화하지 않는 성격이라면, 인지 구조는 경험과 학습을 통해 변화될 수도 있는 성격이다. 최근에는 한 개인의 성격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 개인의 삶의 정체성을 성격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개인은 삶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인 행동이나 사건에 주관적 의미를 부여한다. 개인은 자기 정체성을 통해 성격 특질과 인지 구조의 범주를 넘어, 다른 사람과 더 구별되는 고유한 존재가 될 수 있다.[1)]

성격이 개인을 특징짓는 지속적이며 일관된 행동양식으로 정의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2)], 인간의 행동은 성격 특질과 인지 구조, 정체성 차원이 모두 반영된 통합적인 성격 구조 안에서 보다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게 설명될 수 있다. 인간의 일반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도덕 행동 또한 성격 특질과 인지구조, 정체성 차원에서 보다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게 설명될 수 있다.[3)]

---

1) D. P. McAdams & J. L. Pals, “A new Big Five: fundamental principles for an integrative science of personality”, *American psychologist.* 61-3(2006), p. 204.

2) R. B. Cattell, “Theory of fluid and crystallized intelligence: A critical experimen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54-1(1963), pp.1-22.

3) E. G. Helzer, R. M. Furr, A. Hawkins, M. Barranti, L. E. Blackie, & W. Fleeson, “Agreement on the perception of moral character.”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40-12(2014), pp.1698-1710.; B. McFerran, K. Aquino & M. Duffy, “How personality and moral identity relate to individuals’ ethical ideology”, *Business Ethics Quarterly*, 20-1(2010), pp.35-56.; J. Kagan, “Human morality and temperament”,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51(January, 2005), pp.1-32.; D. Narvaez & D. K. Lapsley(2009), pp.237-274.; P. L. Hill & B. W. Roberts, “Propositions for the study of moral personality development”,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9-6(2010), pp.380-383.; K. Kristjánsson, “Selfhood, morality,

본 연구는 도덕적 성격을 “개인의 도덕적 삶에 방향성과 응집성을 부여하는 개인의 복합적인 성격 특성”으로 개념화하고, 탈북 청소년의 도덕적 성격을 생물 발생의 도덕 성향(moral disposition), 사회 발생의 도덕 도식(moral schema), 개체 발생의 도덕 정체성(moral identity) 차원에서 실증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생물 발생의 도덕 성향은 특정한 방식으로 도덕 상황을 관찰하고 느끼고 해석하고 행동하는 생물학적이고 유전적인 성격 특질을 의미한다. 사회 발생의 도덕 도식은 상황과 맥락, 역할에 적응적이고 경험과 학습을 통해 강화되고 자주 활성화되는 도덕적 인지구조를 의미한다. 개체 발생의 도덕 정체성은 자기 존재와 삶의 의미를 성찰하여 도덕적 삶에 통일성, 일관성, 목적성을 부여하는 정체성을 의미한다.[4] 본 연구는 탈북 청소년의 생물학적・유전적 도덕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 심리학 분야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HEXACO 성격 검사 도구를 활용한다. 또한 탈북 청소년의 적응적・환경적 도덕 도식를 파악하기 위해 최근 교육학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성격 강점 검사 도구를 이용한다. 나아가 탈북 청소년의 자기 규정적・자기 성찰적 도덕 정체성을 분석하기 위해 자기성찰지능 척도 도구를 활용한다.

제2절 관련된 국내외 연구 실태와 동향

탈북 청소년의 인성 및 성격 특성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연구 성과의 양적 부족, 최신 연구 결과나 자료의 부재, 실증적 접근의 부족, 인성 및 성격 개념의 공통 요소 결여, 실제의 일상생활에서 주목해야 하는 도덕적 성격 특성에 대한 분석 부재 등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탈북 청소년의 인성 및 성격 특성을 객관성과 신뢰도가 높은 검사 도구를 활용하여 통계 자료를 도출하여 제시한 선행연구는 매우 드물다. 또한 인성 및 성격 특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의 정의 측면에서 개념의 공통된 구인(construct)이 연구들 간에 공유되고 있지 않고 상이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

and the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Theory & Psychology*, 22-5(2012), pp.591-606.; D. K. Lapsley & P. L. Hill, “The development of the moral personality”, in: D. Narvaez & D. Lapsley (eds.), *Personality, identity, and character: Explorations in moral psychology*(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pp.185-213.; D. Lapsley & D. Narvaez, “The having, doing and being of moral personality”, *The philosophy and psychology of character and happiness*, 28(2014), pp.133-154.; D. P. McAdams, “The Moral Personality”, in: D. Narvaez & D. K. Lapsley (eds.), *Moral Personality, Identity and Character: An Interdisciplinary Future*(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pp.11-29.; W. Fleeson, R. M. Furr, E. Jayawickreme, P. Meindl & E. G. Helzer(2014), pp.178-191.; L. J. Walker, J. A.Frimer & W. L. Dunlop, “Varieties of moral personality: Beyond the banality of heroism”, *Journal of personality*, 78-3(2010), pp.907-942.

4) 박보람, “도덕적 성격 변인과 행동 유형”, 『윤리연구』 제114호, (서울: 한국윤리학회, 2017), pp. 199-223.

먼저, 본 연구 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선행연구의 주요한 내용과 방법, 그리고 연구 수행자의 관점 및 연구 계획 제안자의 관점에서 선행연구의 의의와 한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손영미 등(2014)의 '여성 새터민의 성격유형에 따른 심리적응'은 다요인인성검사Ⅱ를 활용하여 여성 새터민들의 심리적 특성을 살펴보고 서로 구별되는 성격유형을 추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성격특성이 자아정체감, 적응유연성 등 심리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종래 탈북주민의 성격 및 인성 특성 연구 방법을 비판하면서 다요인인성검사 도구의 유용성을 정당화한다. 즉, 탈북주민은 탈북에서 입국까지 극심한 스트레스와 공포 상황에 노출되었고 그 상황을 견디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긴 깊은 심리적 상처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열악한 상황에서도 꿋꿋이 견디고 살아온 강인한 생명력과 인내력, 끈기, 목표 등의 긍정적 자원도 소유하고 있다. 그런데 탈북주민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MMPI 로샤, 간이심리상태검사 등의 임상적 진단도구를 활용하여 탈북주민의 심리적 상처를 진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손영미 등은 종래 대부분의 연구에서 활용된 이러한 연구방법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탈북주민의 긍정적 자원과 강점, 성격 이해를 주목적으로 한다.

위의 연구 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여성 탈북민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 정착 기간과 성격 변인의 상관관계 분석이다. 즉, 여성 탈북민의 정착기간은 자아강도, 대담성, 자책성, 불안성 척도와 유의미한 상관가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위의 연구는 성인 탈북자와 청소년 탈북자를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다요인인성검사도구를 활용하기는 하였으나, 연구 결과 해석에서 여전히 심리적 문제 중심적 접근을 취한다는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연구 대상을 탈북 청소년으로 한정짓고, 탈북배경 및 정착환경 변인에 따른 탈북 청소년의 성격특성을 분석하여 통일정책 및 통일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 하였다. 또한 탈북 청소년의 긍정적인 성격 특성을 파악하여 사회통합이나 통일교육에서의 인성교육을 위한 교육 방안을 제안하는 데 중심을 두었다.

김현아(2004)의 '북한이탈주민의 품행장애 행동과 성격적 특성에 관한 연구'는 품행장애 행동을 보인 탈북주민의 성격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사회적응을 위한 심리검사 도구 및 예방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동 연구는 초기 남한사회 적응기관인 하나원에서 폭언, 폭행, 무례한 언행, 무단이탈 등의 품행장애 행동을 보이는 탈북주민의 성격적 특성을 MMPI 및 표준화성격진단검사를 통해 조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품행장애 행동을 한 탈북주민의 MMPI 척도 점수는 Pa 척도와 F 척도 상에서 적응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표준화성격진단검사 결과는 적응집단과 비교할 때 지배성, 사려성, 충동성, 척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고 동조성이 낮은 특성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아의 연구는 초기 남한사회 적응기관에서의 품행행동 장애 군에 대한 성격적 특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추후 품행장애 행동 및 범죄행동을 예언할 수 있는 심리적 기준 마련, 잠재적 적응 취약자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탈북주민 대량 유입 시 효과적인 적응 정책 개발을 위한 준거 개발에서 유용성을 갖는다.

김현아의 연구는 탈북주민 중 타인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친 품행장애 행동을 보인 소수의 사람만을 대상으로 실시된 성격검사 결과를 기초로 하였다. 그러나 사례 수가 적어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 특히 연령에 따른 경험 차이나 유입 경로에 따른 경험 차이, 연령차에 함축된 경험의 내용과 범위에서의 차이 등 문화적, 구조적 제약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점이 있다. 또한 품행장애 행동보다는 일상적인 삶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행동, 대인관계에서의 행동, 국가와 같은 공동체에 대한 행동에서의 특성을 밝히고, 분석 결과를 기초로 탈북주민을 위한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 개발의 기준이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적실성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공감, 양심, 존중, 관용, 절제, 친절, 공정 등의 인성을 중심으로 탈북 청소년의 도덕적 성격 특성을 파악하고 탈북 청소년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 방안을 제안하는 데 중점을 둔다.

박보람(2017)은 '도덕적 성격의 구조에 따른 도덕적 행동의 개인차 연구'라는 박사학위 논문에서 도덕적 성격의 구조와 기능을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도덕적 성격 실증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도덕적 성격의 3차원을 밝히고 도덕적 성격 3요인의 조합을 통해 도덕 행동의 개인차를 규명하였다. 연구 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손영미 등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도덕적 행동의 3군집 유형을 도출하고 군집별 성격특성에 적합한 교육 방안을 제안한 점이다.

위 연구는 도덕적 성격이 도덕 행동의 작동기제로 기능하며 개인의 도덕적 성격 구조에 따라 도덕 행동의 개인차가 나타날 수 있음을 실증한다. 특히, 대학생의 인성과 도덕적 성격 특성을 실증적으로 규명한 점에서 앞으로 수행할 연구에 중요한 기준을 제공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그 결과를 다른 연령대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추후 연구에서 검증되어야 할 과제를 남겼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청소년기 탈북 청소년의 인성 및 성격 특성을 위 연구에서 활용한 실증적 연구 방식을 활용하여 결과를 비교 분석한다.

본 연구는 위에서 개요 한 선행연구 결과를 참조하여 탈북 청소년의 도덕적 성격 특성을 분석 한다. 특히, 탈북 청소년의 연령, 출생 지역, 중국 거주 기간, 한국 정착 기간 등의 변인과 도덕적 성격 특성의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통일정책과 통일교육을 위한 실증적인 객관적 자료를 도출 한다.

제2장 연구문제

본 연구는 탈북 청소년의 생물학적・유전적 도덕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 심리학 분야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HEXACO 성격 검사 도구를 활용했다. 또한 탈북 청소년의 적응적・환경적 도덕 도식을 파악하기 위해 최근 교육학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성격 강점 검사 도구를 이용했다. 나아가 탈북 청소년의 자기 규정적・자기 성찰적 도덕 정체성을 분석하기 위해 자기성찰지능 건사도구를 사용했다. 탈북배경과 정착환경에 따른 탈북 청소년의 도덕적 성격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탈북 청소년이 한국사회에 보다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교육적 접근 방안을 논의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덕 지능 검사, HEXACO 성격 검사, 성격 강점 검사, 자기성찰지능 척도를 활용하여 탈북 청소년의 도덕적 성격 특성과 강점을 분석한다.

둘째, 탈북배경과 정착과정이 탈북 청소년의 도덕적 성격과 일상의 도덕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셋째, 탈북 청소년이 자신의 도덕적 성격 강점을 발견하고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적 지원 방안을 제안한다.

제3장 방법 및 절차

제1절 조사 기간 및 대상

2017년 5월 생명윤리위원회 IRB 연구승인을 거쳐 6월부터 8월까지 두 달에 걸쳐 탈북 청소년의 도덕적 성격 검사를 진행했다. 응답자는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H고등학교 학생 115명과 서울 중구에 위치한 Y고등학교 학생 93명이다. H고등학교는 경기도교육청 관내 사립 특성화 중·고등학교로서 정착기 학교 전·편입 이전 6개월 또는 1년 전환기 교육을 실시한다. Y고등학교는 교육부 인가 대안학교로서 학령기를 초과, 학교 부적응 탈북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안교육을 실시한다. 탈북 청소년의 도덕적 성격 검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Y고등학교와 H고등학교의 교장, 교감, 교사와 검사 문항을 검토하고 진행 방식을 협의했다. 탈북 청소년의 상당수가 한글 해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검사 문항의 일부 단어에 북한식 표현을 병기했다. 한국어보다 중국어가 익숙한 탈북 청소년을 위하여 검사 문항을 중국어로 번안하여 제공했다.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생인 예비교사와 대학원생인 현장교사 12명이 조사 과정에 참여했으며, 교사 1명 당 10명의 탈북 청소년이 연구에 참여했다.

교사와 탈북 청소년 간에 상호 신뢰와 친근감을 형성하기 위해 검사 전에 간단한 레크레이션을 실시했다. 탈북 청소년의 도덕적 성격은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검사했다. 탈북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성별, 나이, 출생지, 중국 거주 기간, 한국 정착 기간, 동거 가족, 종교를 조사했다.

탈북 청소년은 도덕적 성격 검사를 완료한 후 자신의 검사 결과를 현장에서 바로 모바일 기기로 확인했다. 도덕적 성격 검사를 모두 마친 탈북 청소년에게는 연구 참여 사례비로 오천 원을 제공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탈북 청소년의 도덕성 성격 프로파일 208개가 수집되어 분석에 사용되었다.

제2절 측정 도구

1. 청소년 도덕 지능 검사

도덕 지능 검사는 M. Borba(2001)[5]가 제시한 '도덕 지능 검사(Moral Intelligence Checklist)'를 김혜진 외 3인(2010)[6]이 국내 청소년 대상으로 타당화한 검사로, 도덕 지능 특성 고찰 및 청소년 도덕 지능 증진 프로그램 개발에 유용한 검사로 보고되고 있다. 청소년 도덕 지능 검사는 7개의 하위요인(공감, 존중, 친절, 관용, 공정, 자제력, 분별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요인별 신뢰도(Cronbach α = .73~.83)와 하위 요인의 구성개념 신뢰도(.73~.84)가 양호하게 나타나는 신뢰할 만한 검사도구이다.

본 연구는 탈북 청소년의 도덕 행동 수행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김혜진 외 3인이 개발한 도덕 지능 검사 42문항 중 신뢰도가 높게 나타난 28문항(요인별 4문항)을 사용하였다. 검사 문항을 축소한 것은 한글 해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탈북 청소년의 검사 부담을 최소화하고 성실한 응답을 이끌어 내기 위함이다.

---

5) M. Borba, 현혜진 역, 『건강한 사회인 존경받는 리더로 키우는 도덕 지능』, (서울: 한언, 2004)

6) 김혜진 외, "청소년 도덕 지능 검사도구 타당화", 『열린교육연구』 18, (서울: 열린교육학회, 2010), pp. 152-170.

도덕 지능은 확고한 윤리적 신념에 따라 올바르고 부끄럽지 않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다. 보바(M. Borba)는 도덕 지능이 확립되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내적 능력들이 발휘되고, 그로 인해 외부 압력들에 저항할 수 있게 된다고 보았다. 그녀는 도덕 지능을 부정적인 압력에 맞서는 데 필요한 힘이면서 동시에 올바른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힘이 된다고 보았다. 도덕 지능에는 친구나 가족이 힘들어 할 때, 함께 고통을 느끼고 슬퍼하는 '공감(empathy)', 올바른 행동을 알고, 올바르지 않은 행동에 대한 강요를 물리칠 수 있는 '분별력(conscience)', 스스로의 욕구와 충동을 조절할 수 있는 '자제(self-control)', 다른 사람을 헐뜯거나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는 '존중(respect)', 보답을 바라지 않고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친철(kindness)', 다른 사람이 실수했을 경우에도 타인을 쉽게 비난하지 않는 '관용(tolerance)', 다른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고 그들의 권리를 생각하는 '공정(fairness)'과 같이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능력들이 포함된다.

2. 한국판 HEXACO 성격 검사

HEXACO 성격 검사는 Lee와 Ashton(2004)이 제작한 HEXACO-PI를 유용태, 이기범, Michael C. Ashton(2004)이 번안하여 한국판 HEXACO 성격 검사로 개발한 것이다. HEXACO 성격 검사는 Big5 모델에 정직·겸손 요인이 추가된 모델이다. HEXACO 성격 특질은 많은 언어권에서 신뢰도 있게 관찰되고 있으며, 기존에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Big5 성격 특질을 대신하고 있다. 한국판 HEXACO 성격 검사 도구는 6개의 하위요인(정직・겸손성, 정서성, 외향성, 원만성, 성실성, 개방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요인별 신뢰도(Cronbach α = .85~.93)와 하위 요인의 구성개념 신뢰도(.60~.88)가 양호하게 나타나는 신뢰할 만한 검사도구이다.

본 연구는 탈북 청소년의 도덕 성향을 확인하기 위해 유용태, 이기범 Michael C. Ashton(2004)이 개발한 한국판 HEXACO 성격 검사 60문항 중 정직・겸손 요인을 묻는 10문항을 제외하였다. 이는 도덕적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중립적 성격 특질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또한 나머지 50문항 중에서도 신뢰도가 높게 나타난 25문항(요인별 5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역시 한글 해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탈북 청소년의 검사 부담을 최소화하고 성실한 응답을 이끌어 내기 위함이다.

개인의 성격 특질은 도덕 상황을 관찰하고 느끼고 해석하고 행동하는 '도덕 성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7] 성격 특질과 도덕 행동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성격 5요인이

7) 박보람, "도덕 행동의 작동기제로서 도덕적 성격",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집 9호,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16), pp. 1019-1037.

어떠한 조합과 강도로 작동하느냐에 따라 도덕 행동 방식이 다르게 나타난다.[8] 성격 특질은 진화적 사회 환경에서 생존에 적합하도록 변이된 것이며, 신경생물학적 구조에 의해 작동하기 때문에 일관되게 유지되고 쉽게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생물발생의 성격 특질에 대한 이해는 개인의 안정적인 도덕 행동 방식을 예측하는데 도움이 된다. 특히 HEXACO 성격의 성실성, 친화성, 개방성은 도덕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 특질로 확인되고 있다.[9]

HEXACO 성격에는 사소한 일에 지나치게 걱정하거나, 위험한 상황에서 무서움을 많이 타는 '정서성', 자기 스스로에 대해 만족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말하는 '외향성', 다른 사람이 계속 실수하거나 나를 괴롭히더라도 싫은 소리를 하지 않고 용서하는 '원만성', 행동하기 전에 깊이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며,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신을 다그치는 '성실성', 예술 작품을 창조하는 것을 즐기고, 다른 사람의 철학이나 다른 지역의 역사, 정치에 관심이 많은 '개방성'과 같은 성향들이 포함된다.

3. 성격 강점 검사(KICS)

성격 강점 검사(KICS)는 Park, Peterson과 Seligman(2005)이 개발한 VIA-IS(Values in Action Inventory of Strengths)의 청소년판인 VIA-Youth를 바탕으로 김광수 외5인(2015)이 우리나라 아동의 발달 특성과 실정에 맞게 타당화 한 한국형 아동용 성격 강점 검사(KICS)이다. KICS는 아동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적인 강점코칭 및 상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유용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KICS는 6개의 하위요인(지성, 인간애, 용기, 절제, 정의, 초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요인별 신뢰도(Cronbach α = .74 ~ .91)가 만족할만한 수준이고 전체 24개 강점에 대한 신뢰도도 .98로 매우 높아 신뢰할 만한 검사도구이다.

본 연구는 탈북 청소년의 도덕 행동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도덕 역량을 확인하기 위해 김광수 외5인(2015)이 개발한 KICS를 사용하였는데, 한글 해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탈북 청소년의 검사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KICS 120 문항 중 신뢰도가 높게 나타난 48문항을 사용하였다.

강점은 '가치 있는 성과를 위한 최적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역량'이다.[10] 강점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고, 감정, 행동과 관련된 것으로서, 이를

---

8) L. J. Walker & R. C. Pitts, "Naturalistic conceptions of moral maturity", *Developmental psychology*, 34-3(1998), pp. 403-419.

9) 이기범 & M. C. Ashton, 『H팩터의 심리학 (H 팩터가 높은 인간과 낮은 인간의 성격 탐구)』 (서울: 문예출판사, 2013), p. 38.

10) M. E. Seligman (2002). *Authentic happiness: Using the new positive psychology to realize your potential for lasting fulfillment.* New York: free Press. pp. 3-16.

발휘할 때 자연스럽고 편안함을 느끼며 에너지가 넘치고 이로 인해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11] 성격 강점은 개인의 도덕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성격 강점의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도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문용린(2011)은 24개의 성격 강점 중 도덕성과 관련된 강점(진실성, 용감성, 인내, 친절, 사랑, 사회성, 공정성, 리더십, 시민의식, 용서·자비, 겸손·겸양, 자기조절, 감사, 희망)이 과반수이며, 도덕과 관련된 강점을 가진 사람들이 지혜·지식과 관련된 강점을 가진 사람들보다 사회적으로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주장한다.[12] 그것은 용기, 인간애, 절제와 같은 도덕적 강점들이 다른 사람이나 사회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재능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성격 강점은 도덕 행동의 범위를 타인과 사회로 넓혀주는 도덕 역량이 될 수 있다.

성격 강점은 곰곰이 생각하고 더 폭넓은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지혜', 고통과 좌절에도 의지를 굽히지 않는 '용기', 다른 사람의 감정에 관심을 갖고 스스로 나서서 이웃을 돕는 '인간애',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공정하게 대할 수 있는 '정의', 결심한 행동을 실천하기 위해 내 욕구와 정서를 다스릴 줄 아는 '절제', 삶의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고 뚜렷한 목적을 갖는 '초월'과 갖은 덕목들을 기반으로 한다.

4. 자기성찰지능 척도

자기성찰지능 척도는 Gardner(2001)의 다중지능 중 하나인 자아성찰지능을 파악하기 위해 Shearer(2002)가 개발한 다중지능발달평가 척도(MIDAS)를 바탕으로 안체윤과 오미경(2013)이 우리나라 성인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것이다. 자기성찰지능 척도는 성인들이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스스로를 조절하고 반성하며 나아가 자기를 설계하여 자아실현을 이루는 데 도움을 주는 기초자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자기성찰 관련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유용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자기성찰지능은 4개의 하위요인(자기이해, 자기설계, 자기조절, 자기반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요인별 신뢰도(Cronbach α = .75 ~ .89)가 만족할만한 수준이고 전체 4개 요인에 대한 신뢰도도 .93으로 매우 높아 신뢰할 만한 검사도구이다.

본 연구는 탈북 청소년의 도덕 행동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도덕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 안체윤, 오매경(2013)의 자기성찰지능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탈북 청소년의 한글 해독에 어려움을 고려하여 검사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기성찰지능 척도 48문항 중 신뢰도가 높게 나타난 16문항(요인별 4문항)을 사용하였다.

---

11) 김기년, 탁진국, "청소년 강점척도 개발 및 타당도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2(4), (서울: 한국심리학회, 2013). p. 803.

12) 문용린, 『행복한 성장의 조건』(서울: 리더스북, 2011), p. 246.

가드너에 따르면 자기성찰지능은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모든 지능의 작용에서 기본이 되고 다른 지능들을 활성화하는 동인이 되며 개인의 자기실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지능이다. 자기성찰지능은 자신의 생물학적 성격 특질과 사회인지 구조를 정확하게 인식하여 적응적으로 활용하는 '자기이해 능력',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며 충동을 통제하는 '자기조절 능력', 자신의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고 동기화하는 '자기설계 능력',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잘못이나 부족함이 없는지 돌아보는 '자기반성 능력'의 조합으로 나타날 수 있다.

개인은 자기성찰지능의 4개의 하위 요인 즉, 자기이해, 자기설계, 자기조절, 자기반성 능력에 따라 삶의 내러티브를 저마다 다르게 구성한다. 자기성찰 내러티브를 통해 형성되는 도덕 정체성은 도덕 행동의 응집성과 통합성으로 나타난다. 하트와 페글리(D. Hart & S. Fegley)의 연구[13], 콜비와 데이먼(A. Colby & W. Damon)의 연구[14]는 자기성찰과 도덕 행동 간의 상관성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실증연구의 결과는 자기성찰지능이 도덕 행동의 강도에 개인차를 만드는 도덕적 성격의 변인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제3절 자료 분석

본 연구는 도덕 지능 검사, HEXACO 성격 검사, 성격 강점 검사, 자기성찰지능 척도를 활용하여 탈북 청소년의 도덕적 성격 특성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탈북 청소년의 도덕적 성격 강점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 분석의 과정을 거쳤다.

첫째, 참여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했다.
둘째, 검사도구의 타당성 검증과 응답에 대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했다.
셋째, 응답 평균과 표준편차를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했다.
넷째, 출생 국가에 따른 도덕적 성격에 대해 T 검정을 실시했다.
다섯째, 중국 거주기간과 한국 정착기간에 따른 도덕적 성격에 대해 T 검정을 실시했다.
여섯째, 소속 학교에 따른 도덕적 성격에 대해 T 검정을 실시했다.
일곱째, 도덕 지능, HEXACO, 성격 강점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했다.

13) D. Hart & S. Fegley (1995). op. cit., p. 1346.
14) A. Colby & W. Damon (1999). op. cit., p. 342.

1. 인구통계학적 특성

연구에 참여한 탈북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 표 1 > 조사대사자 인구통계학적 분포

구분		빈도(비율)	평균	표준편차
학교	H 고등학교	115 (55.3%)		
	Y 고등학교	93 (44.7%)		
	합계	208 (100%)		
성별	남학생	119 (57.2%)		
	여학생	89 (42.8%)		
	합계	208 (100%)		
나이(만)	15세 이하	6 (2.9%)	18.5	2.198
	16	18 (8.7%)		
	17	50 (24%)		
	18	58 (27.9%)		
	19	30 (14.4%)		
	20	15 (7.2%)		
	21	11 (5.3%)		
	22	6 (2.9%)		
	23	6 (2.9%)		
	24세 이상	8 (3.8%)		
출생지	북한	121 (58.2%)		
	중국	87 (41.8%)		
중국 거주 기간	0~1년 미만	88 (42.3%)	8.24	7.589
	1~3년 미만	12 (5.8%)		
	3~5년 미만	13 (6.3%)		
	5~10년 미만	13 (6.3%)		
	10~15년 미만	49 (23.6%)		
	15~20년 미만	33 (15.9%)		
한국 정착 기간	0~1년 미만	39 (18.8%)	5.32	3.963
	1~3년 미만	56 (26.9%)		
	3~5년 미만	60 (28.8%)		
	5~10년 미만	40 (19.2%)		
	10~15년 미만	12 (5.8%)		
	15~20년 미만	1 (0.5%)		
동거 가족 (다중 선택)	엄마	170 (81.7%)		
	아빠	71 (34.1%)		
	형제자매, 사촌	68 (32.7%)		
	조부모	25 (12.0%)		
	고모, 삼촌, 이모	24 (11.5%)		
	친인척	6 (2.9%)		
	기타	24 (11.5%)		
	합계	388(186.5%)		
종교	없음	123 (59.1%)		
	있음	85 (40.9%)		

조사에 참여한 탈북 청소년은 H고등학교 학생 115명과 Y고등학교 학생 93명으로 총 208명이다. 학생의 성별을 살펴보면, 여학생이 119명으로 전체의 57.2%, 남학생이 89명으로 전체의 42.83%를 구성하고 있다. 학생의 만 나이는 14~27세에 분표해 있으며 전체 학생의 평균 나이는 18.48세이다. 16~19세가 158명(75%)으로 가장 많았으며, 16세 미만이 6명(2.9%)인데 비해, 20세 이상이 46명(22%)으로 한국 학생의 재학 연령에 비해 높은 연령의 학생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15].

학생의 출생지를 살펴보면 북한 출생 학생이 121명(58.2%), 중국 출생 학생 87명(41.8%)으로 북한 출생 학생이 16.4% 더 많았다. 탈북 청소년이 평균적으로 중국에 거주한 기간은 8.24년이고, 한국에 정착한 기간은 5.32년으로 평균적으로 중국에서 더 많은 기간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이 현재 동거하고 있는 가족을 다중 선택으로 조사한 결과, 엄마와 함께 살고 있는 청소년이 170명(31.7%), 아빠와 함께 살고 있는 청소년이 71명(18.3%), 형제자매 및 사촌과 함께 있는 청소년이 68명(17.5%)으로 가장 많았다. 동거 유형 중에는 엄마와 단둘이 사는 학생이 66명(28.2%)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엄마 아빠와 함께 사는 청소년이 31명(14.9%), 엄마 형제와 함께 사는 청소년이 25명(12%)로 다음으로 많았다[16]. 학생 중 종교가 있는 학생은 38명(33%)으로, 많은 학생이 종교를 갖고 있지 않았다.

2. 요인 구성 타당도과 응답 신뢰도

1) 도덕 지능

도덕 지능 요인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도덕 지능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유값 1.0 이상을 기준으로 4가지 요인을 추출하였다. 직교 회전 방법인 베리맥스 회전을 통하여 요인 회전을 하였으며, KMO의 적절성과 Bartlett의 구형성을 동시에 검정했다. KMO 값이 0.891로 변수들의 선정이 양호하다고 판단되었다. 다음으로 Bartlett 값이 0.001보다 훨씬 작게 나왔으므로 요인 분석의 사용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도덕 지능을 요인 분석한 결과 관용, 존중, 공정, 자제의 7가지 요인이 상위변수로 나타났다.

도덕 지능 검사에 대한 응답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동일한 개념에 대해 측정을 반복했을

15) 한국의 고등학교 학생의 일반적인 나이(만16~18세)와 비교해 볼 때, H중고등학교는 64%의 학생이 만16~18세에 분포했 있었으며, Y학교는 56%의 학생만이 16~19세에 분포해 있었다.

16) 가족 간의 동거 유형에서 H학교 학생은 Y학교 학생에 비해 엄마, 아빠, 형제와 사는 비율이 높았으며, 반면 Y학교 학생은 조부모, 고모·삼촌·이모, 기타(이웃 및 무연고)와 함께 사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경우 동일한 측정값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지 Cronbach α를 검정했다. ‘관용’(.933)은 신뢰도 값이 0.9 이상으로 매우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존중’(.791), ‘공정’(.833) 또한 신뢰도 값이 0.7이상으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자제’는 신뢰도 값이 .522로 나왔다. 보통 논문에서는 신뢰도 값이 0.6 이상이면 신뢰도가 양호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관용’, ‘존중’, ‘공정’의 신뢰도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 표 2 > 도덕 지능 요인 구성 타당도과 응답 신뢰도

항목	요인명				Cronbach`s Alpha
	관용	존중	공정	자제	
도덕지능23	.853	-.016	-.032	.020	.933
도덕지능16	.841	.145	-.072	.058	
도덕지능22	.840	.141	-.118	-.042	
도덕지능 1	.809	-.051	.094	.080	
도덕지능 9	.808	-.120	.167	.021	
도덕지능18	.789	.036	-.055	.117	
도덕지능 7	.764	.048	.058	-.133	
도덕지능11	.751	-.158	.016	.048	
도덕지능25	.733	.031	.082	.041	
도덕지능24	.680	.234	-.243	.016	
도덕지능13	-.136	.720	.155	.114	.791
도덕지능21	-.001	.677	.329	.002	
도덕지능 2	.143	.666	.269	-.096	
도덕지능17	-.003	.625	.113	.348	
도덕지능14	.115	.528	.288	.327	
도덕지능5	.063	.436	.377	.145	
도덕지능27	-.123	.212	.750	.035	.833
도덕지능28	-.012	.304	.748	.091	
도덕지능26	-.067	.164	.664	.230	
도덕지능20	.007	.453	.576	.155	
도덕지능15	.136	.092	.532	.478	
도덕지능19	-.139	.368	.524	.372	
도덕지능8	.219	.376	.426	.049	
도덕지능10	.029	.037	.253	.716	.522
도덕지능 4	-.023	.449	.064	.574	
도덕지능12	.288	.343	.270	.406	
아이겐값	6.465	3.397	3.347	1.783	
변량	24.865	13.066	12.873	6.856	
누적 변량	24.865	37.931	50.803	57.660	
Kaiser-Meyer-Olkin Measure of Sampling Adequacy = .891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Chi-Square X2=2753.259(df=325, 0.000)***					

2) HEXACO 특질

HEXACO 성격 요인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유값 1.0 이상을 기준으로 3가지 요인을 추출하였다. KMO 값이 0.646으로 변수들의 선정이 양호하다고 판단되었다. 다음으로 Bartlett 값이 0.001보다 훨씬 작게 나왔으므로 요인 분석의 사용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HEXACO 성격을 요인 분석한 결과 '원만성', '외향성', '개방성'의 4가지 요인이 상위변수로 나타났다. HEXACO 성격에 대한 응답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 α를 검정했다. '원만성'(.605)은 신뢰도 값이 0.6 이상으로 양호한 신뢰도를 보이고 있지만, '외향성'(.588)과 '개방성'(.528)은 신뢰도 값이 0.6이하로 다소 낮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 표 3 > HEXACO 성격 요인 구성 타당도과 응답 신뢰도

항목	요인명			Cronbach`s Alpha
	원만성	외향성	개방성	
HEXACO21	.733	.075	-.031	
HEXACO10	.708	.162	.102	
HEXACO17	.570	.101	.144	.605
HEXACO11	-.521	.364	.317	
HEXACO18	-.472	.463	.205	
HEXACO13	.024	.689	-.181	
HEXACO2	-.049	.616	.087	
HEXACO4	.231	.598	-.025	.588
HEXACO3	.333	.505	-.106	
HEXACO15	-.023	.455	.263	
HEXACO20	-.019	-.044	.770	
HEXACO6	.311	.093	.648	.528
HEXACO1	-.088	-.012	.634	
아이겐값	2,129	2.072	1.711	
변량	16.377	15.936	13.159	
누적 변량	16.377	32.313	45.472	
Kaiser-Meyer-Olkin Measure of Sampling Adequacy = .646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Chi-Square X2=362.478(df=78, 0.000)***				

3) 성격강점

성격 강점 요인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유값 1.0 이상을 기준으로 4가지 요인을 추출하였다. KMO 값이 0.792로 변수들의 선정이 양호하다고 판단되었다. 다음으로 Bartlett 값이 0.001보다 훨씬 작게 나왔으므로 요인 분석의 사용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성격 강점을 요인 분석한 결과 '인간애', '지혜', '용기', '절제'의 4가지 요인이 상위변수로 나타났다. 성격 강점에 대한 응답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 α를 검정했다. '인간애'(.625)와, '지혜'(7.28)는 신뢰도 값이 0.7 이상으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용기'(.521), '절제'(.554)는 신뢰도 값이 0.6이하로 다소 낮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 표 4 > 성격 강점 검사도구의 타당성과 응답 신뢰도 분석

항목	요인명				Cronbach`s Alpha
	인간애	지혜	용기	절제	
성격강점12	.718	.195	.100	.026	
성격강점11	.665	.098	.088	.051	
성격강점21	.595	.162	.149	.069	.625
성격강점 8	.505	.290	.206	.074	
성격강점16	.406	-.123	.268	.286	
성격강점 3	.263	.854	.025	.108	
성격강점 1	.383	.735	.003	.161	.728
성격강점19	-.050	.597	.547	.061	
성격강점 5	.070	.124	.712	.049	
성격강점 6	.229	-.038	.673	.127	.521
성격강점15	.306	.044	.534	.175	
성격강점17	-.073	.166	.096	.753	
성격강점14	.059	.057	.145	.714	.554
성격강점18	.343	.055	.049	.620	
아이겐값	2.227	1.851	1.731	1.646	
변량	15.906	13.218	12.367	11.760	
누적 변량	15.906	29.124	41.491	53.251	
Kaiser-Meyer-Olkin Measure of Sampling Adequacy = .792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Chi-Square X2=582.566(df=91, 0.000)**					

4) 자기성찰지능

자기성찰지능 요인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유값 1.0 이상을 기준으로 4가지 요인을 추출하였다. KMO 값이 0.876으로 변수들의 선정이 양호하다고 판단되었다. 다음으로 Bartlett 값이 0.001보다 훨씬 작게 나왔으므로 요인 분석의 사용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자기성찰지능을 요인 분석한 결과 '자기조절', '자기설계', '자기이해', '자기반성'의 4가지 요인이 상위변수로 나타났다. 성격 강점에 대한 응답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 α를 검정했다. '자기조절'(.841), '자기설계'(.821), '자기이해'(.753) 모두 신뢰도 값이 0.7 이상으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자기반성'(.689) 또한 신뢰도 값이 0.6 이상으로 양호한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 표 5 > 자기성찰 검사도구의 타당성과 응답 신뢰도 분석

항목	요인명				Cronbach`s Alpha
	자기조절	자기설계	자기이해	자기반성	
자기성찰 9	.766	.325	-.003	.099	.841
자기성찰11	.678	.135	.194	.258	
자기성찰13	.671	.106	.451	.049	
자기성찰12	.617	.461	.081	.236	
자기성찰16	.472	.298	.194	.417	
자기성찰15	.471	.327	.122	.415	
자기성찰 5	.123	.800	.255	-.043	.821
자기성찰 8	.241	.780	.070	.166	
자기성찰 7	.174	.707	.054	.426	
자기성찰 4	.344	.589	.472	.070	
자기성찰 2	.169	.064	.801	.363	.753
자기성찰 6	.006	.383	.747	.220	
자기성찰 1	.433	.305	.600	-.197	
자기성찰14	.459	-.061	.487	.405	.689
자기성찰 3	.142	.217	.150	.761	
자기성찰10	.484	-.029	.339	.526	
아이겐값	3.225	2.934	2.529	1.935	
변량	20.156	18.340	15.809	12.093	
누적 변량	20.156	38.496	54.305	66.398	
Kaiser-Meyer-Olkin Measure of Sampling Adequacy = .792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Chi-Square X2=582.566(df=91, 0.000)**					

5) 사회적바람직성

본 연구는 탈북 청소년의 도덕 행동에 대한 자기보고가 실제 도덕 행동보다 다소 과장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적바람직성 검사도구를 사용했다. 심리학에서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는 다양한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쉽고, 개인의 경험이나 태도와 같은 삶의 다양한 측면들을 반영할 수 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실시하기 용이하다는 장점 때문에 널리 사용된다. 그러나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는 다양한 심리 변수들 간의 관계를 주로 연구 참여자의 주관적 경험 보고에 의존해 파악하기 때문에 반응편파(response bias)에 의해 연구결과가 왜곡될 가능성도 있다.[17]

반응편파가 나타나는 대표적인 예로 사회적바람직성(socially-desirable responding)이 있다. 사회적바람직성은 설문에 응답할 때 자신의 실제 의견이나 태도보다는 사회적으로 용인되거나 지지되는 방향으로 응답하려는 경향성을 의미한다. 사회적바람직성은 응답자의 반응을 실제보다 과장 또는 축소시켜 잘못된 연구 결과를 도출하고, 변인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연구에 의도치 않은 영향을 미쳐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훼손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응답자의 사회적바람직성을 제어하기 위해 스토버(J. Stöber)의 SDS-17(Social Desirability Scale-17)[18]을 수정한 한국형 SDS-9(Social Desirability Scale-9)[19]를 사용한다. 한국형 SDS-9는 문항수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설문지 연구에 포함하기에 용이할 뿐만 아니라 문항이 사회상을 잘 반영하는 내용과 표현으로 진술되어 있고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기 때문에 유용한 척도로 평가되고 있다.

본 연구는 사회적바람직성 검사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사회적바람직성의 변인들을 요인 분석하여 2가지 요인으로 단순화했다. 직교 회전 방법인 베리맥스 회전을 통하여 요인 회전을 하였으며, KMO의 적절성과 Bartlett의 구형성을 동시에 검정했다. KMO가 0.702가 나왔으므로 변수들의 선정이 양호하다고 판단했다. Bartlett가 0.001보다 훨씬 작은 값이 나왔으므로 요인분석의 사용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사회적바람직성을 요인분석한 결과 '자기기만'과 '인상관리'의 2가지 요인으로 상위변수가 나타났다. '자기기만'은 솔직하게 응답하려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과장되게 긍정적으로 표시하려는 왜곡이다. '인상

17) 김용석 (2010). "사회적바람직성 척도의 개발",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2(3),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pp. 1-39.

18) J. Stöber (2001). "The Social Desirability Scale-17 (SDS-17): Convergent validity, discriminant validity, and relationship with age."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ssessment.* 17(3), pp. 222-232.

19) 배병훈, 이동귀, 함경애 (2015). "Rasch 모형을 이용한 한국판 사회적바람직성 척도 단축형 (SDS-9)의 타당화", 『상담학연구』. 16(6), 한국상담학회. pp. 177-197.

관리’는 ‘의식적’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좋은 인상을 나타내려는 경향성이다. 사회적바람직성 검사에 대한 응답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동일 개념의 측정을 반복했을 경우에도 동일한 측정값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지 Cronbach α를 검증했다. 인상관리(.588)와 자기기만(.589)은 신뢰도 값이 0.60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6 > 사회적바람직성 검사도구의 타당성과 응답 신뢰도 분석

항목	요인명		Cronbach`s Alpha
	자기조절	자기설계	
사회적바람직성1	.776	.021	.588
사회적바람직성3	.644	-.083	
사회적바람직성5	.634	.316	
사회적바람직성2	.531	.149	
사회적바람직성8	-.033	.776	.589
사회적바람직성6	.009	.663	
사회적바람직성7	.206	.634	
사회적바람직성10	.414	.496	
아이겐값	1.916	1.819	
변량	23.948	22.738	
누적 변량	22.738	46.686	
Kaiser-Meyer-Olkin Measure of Sampling Adequacy = .792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Chi-Square X2=582.566(df=91, 0.000)**			

3. 기술 통계분석

탈북 청소년의 도덕 지능, HEXACO 요인, 성격 강점, 자기성찰지능에 대한 기술 통계 값은 다음과 같다.

< 표 7 > 연구 대상자의 도덕적 성격검사 기술통계 분석

	기술통계량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도덕지능 관용	208	1.00	5.00	3.0538	1.03101
도덕지능 공정	208	2.25	5.00	3.9651	.67185
도덕지능 존중	208	1.00	5.00	3.7548	.66236
도덕지능 자제	208	2.00	5.00	3.6699	.65036
HEXACO 원만성	208	1.33	5.00	3.2596	.79377
HEXACO 외향성	208	1.00	5.00	3.2115	.69093
HEXACO 개방성	208	1.00	5.00	3.1667	.83019
성격강점 인간애	208	1.83	5.00	3.0817	.46423
성격강점 지혜	208	1.33	5.00	3.0304	.70683
성격강점 용기	208	2.00	5.00	3.1450	.46155
성격강점 절제	208	1.67	5.00	3.1338	.51740
자기성찰 자기조절	208	1.67	5.00	3.8462	.76128
자기성찰 자기설계	208	1.00	5.00	3.8077	.85339
자기성찰 자기이해	208	1.00	5.00	3.8061	.83232
자기성찰 자기반성	208	2.00	5.00	3.8333	.75074
사회적바람직성 자기기만	208	1.50	5.00	3.1995	.69407
사회적바람직성 인상관리	208	1.00	5.00	3.2067	.69587
유효 N(목록별)	208				

탈북 청소년의 도덕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도덕 지능을 검사하고 도덕 지능에 영향을 미친 다양한 차원의 성격 요인들을 확인하기 위해 HEXACO 성격, 성격 강점, 자기성찰지능을 검사하였다. 아울러 응답 진실성을 확인하기 위해 사회적바람직성을 검사하였다. 탈북 청소년의 도덕지능을 검사한 결과 '공정'은 평균 3.9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존중'(3.75), '자제'(3.67)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관용'은 평균 3.0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외에 도덕지능 요인인 '공감', '친절', '분별력'은 응답의 구성 타당도와 신뢰도가 낮아 결과에 반영되지 못했다.

학생의 HEXACO 성격을 검사한 결과 '원만성'이 평균 3.2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외향성'이 평균 3.21로 높게 나타났다. 그에 비해 '개방성'은 평균 3.17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HEXACO 성격 특질 중 '정서성'과 '성실성'은 응답의 구성 타당도와 신뢰도가 낮아 결과에 반영되지 못했다.

학생의 성격 강점을 검사한 결과 '용기'를 기반으로 하는 강점이 평균 3.1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절제'(3.13), '인간애'(3.08)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지혜'를 기반으로 하는 강점은 평균 '3.03'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성격 강점 덕목 중 '정의', '초월성'은 응답의 구성 타당도와 신뢰도가 낮아 결과에 반영되지 못했다.

학생의 자기성찰지능을 검사한 결과 대부분의 요인들이 높게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도 '자기조절'(3.85)과 '자기반성'(3.83)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자기설계'(3.81)와 '자기이해'(3.81)의 평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학생의 사회적바람직성을 검사한 결과 '의식적'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좋은 인상을 나타내려는 '인상관리'의 평균이 3.31로 '자기기만'의 평균 3.20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두 요인 모두 일반적인 수준(인상관리=3.30, 자기기만=3.10)과 비교해 볼 때, 정상범위 안에 있다고 볼 수 있다.

4. 출생 국가별 도덕적 성격

탈북 청소년의 도덕 지능을 비롯한 도덕적 성격 검사에서 출생지(북한 또는 중국) 간의 차이에 대한 통계적 검증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표 8 > 도덕 지능에서 출생 국가 간 차이에 대한 T검정 결과

	출생지역	N	평균	표준편차	t	자유도	유의확률 (양측)
도덕지능 관용	북한	121	2.9752	1.06288	-1.299	206	.195
	중국	87	3.1632	.98052			
도덕지능 공정	북한	121	4.0744	.64116	2.811**	206	.005
	중국	87	3.8132	.68753			
도덕지능 존중	북한	121	3.8562	.61818	2.641**	206	.009
	중국	87	3.6138	.69870			
도덕지능 자제	북한	121	3.7438	.62917	1.946	206	.053
	중국	87	3.5670	.66882			
HEXACO 원만성	북한	121	3.2204	.82838	-.840	206	.402
	중국	87	3.3142	.74424			
HEXACO 외향성	북한	121	3.2851	.68868	1.822	206	.070
	중국	87	3.1092	.68487			
HEXACO 개방성	북한	121	3.1433	.83536	-.479	206	.633
	중국	87	3.1992	.82666			
성격강점 인간애	북한	121	3.0551	.50981	-.976	206	.330
	중국	87	3.1188	.39203			
성격강점 지혜	북한	121	3.0096	.79300	-.500	206	.618
	중국	87	3.0594	.56888			
성격강점 용기	북한	121	3.1543	.52931	.340	206	.734
	중국	87	3.1322	.34862			
성격강점 절제	북한	121	3.2163	.55094	2.753**	206	.006
	중국	87	3.0192	.44491			
자기성찰 자기조절	북한	121	3.9449	.75443	2.227*	206	.027
	중국	87	3.7088	.75364			
자기성찰 자기설계	북한	121	3.9642	.79326	3.187**	206	.002
	중국	87	3.5900	.89023			
자기성찰 자기이해	북한	121	3.9780	.81279	3.613***	206	.000
	중국	87	3.5670	.80392			
자기성찰 자기반성	북한	121	3.9669	.73460	3.089**	206	.002
	중국	87	3.6475	.73726			
사회적바람직성 자기기만	북한	121	3.3058	.77223	2.641**	206	.009
	중국	87	3.0517	.53800			
사회적바람직성 인상관리	북한	121	3.3120	.74392	2.608*	206	.010
	중국	87	3.0603	.59670			

*p<.05, **p<0.01, ***p<0.001

탈북 청소년이 도덕 지능을 출생 국가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공정'의 t 값이 2.811로 유의수준 .005에서, '존중'의 t 값이 2.641로 유의수준 .009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에서 태어난 학생의 '공정' 평균(4.07)은 중국에서 태어난 학생의 평균(3.81)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북한에서 태어난 학생의 '존중' 평균(3.86) 또한 중국에서 태어난 학생의 평균(3.61)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출생 국가를 기준으로 학생의 성격 강점을 분석한 결과 '절제'의 t 값이 2.753로 유의수준 .006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에서 태어난 학생의 '절제' 평균(3.21)은 중국에서 태어난 학생의 평균(3.02)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자기성찰지능은 출생 국가에 따라 학생의 검사 결과에 유의미한 차이가 더 많이 나타났다. '자기이해'의 t 값이 3.613으로 유의수준 .000에서, '자기설계'의 t 값이 3.187으로 유의수준 .002에서, '자기반성'의 t 값이 3.089으로 유의수준 .002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에서 태어난 학생의 '자기이해'의 평균(3.98)은 중국에서 태어난 학생의 평균(3.57)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 외에도 북한에서 태어난 학생의 '자기설계' 평균(3.96)은 중국에서 태어난 학생의 평균(3.59)에 비해 높았으며, '자기반성'의 평균(3.97) 또한 중국에서 태어난 학생의 평균(3.65)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5. 중국 거주기간 및 한국 정착기간과 도덕적 성격

탈북 청소년의 중국 거주 기간이 도덕 지능을 비롯한 도덕적 성격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표 9 > 중국 거주기간과 도덕지능 일원배치분산분석

		제곱합	자유도	df	F	유의확률	중국거주기간	N	평균
도덕지능 관용	집단-간	4.402	5	.880	.825	.533	1년 미만	88	2.9386
							1-3년 미만	12	3.1833
							3-5년 미만	13	2.9385
							5-10년 미만	13	3.3846
	집단-내	215.635	202	1.068			10-15년 미만	49	3.2163
							15-20년 미만	33	2.9879
도덕지능 공정	집단-간	5.472	5	1.094	2.513*	.031*	1년 미만	88	4.0710
							1-3년 미만	12	4.1667
							3-5년 미만	13	3.9231
							5-10년 미만	13	4.2308
	집단-내	87.963	202	.435			10-15년 미만	49	3.8469
							15-20년 미만	33	3.6970

도덕지능 존중	집단-간	7.149	5	1.430	3.452**	.005**	1년 미만	88	3.9273
							1-3년 미만	12	3.8000
							3-5년 미만	13	3.7846
							5-10년 미만	13	3.9231
	집단-내	83.667	202	.414			10-15년 미만	49	3.5510
							15-20년 미만	33	3.5030
도덕지능 자제	집단-간	5.714	5	1.143	2.820*	.017*	1년 미만	88	3.7689
							1-3년 미만	12	4.0000
							3-5년 미만	13	3.4872
							5-10년 미만	13	3.9231
	집단-내	81.840	202	.405			10-15년 미만	49	3.5170
							15-20년 미만	33	3.4848
HEXACO 원만성	집단-간	4.419	5	.884	1.417	.220	1년 미만	88	3.2045
							1-3년 미만	12	3.6944
							3-5년 미만	13	3.0513
							5-10년 미만	13	3.5385
	집단-내	126.006	202	.624			10-15년 미만	49	3.2925
							15-20년 미만	33	3.1717
HEXACO 외향성	집단-간	3.389	5	.678	1.435	.213	1년 미만	88	3.3324
							1-3년 미만	12	3.0208
							3-5년 미만	13	3.1731
							5-10년 미만	13	3.3654
	집단-내	95.428	202	.472			10-15년 미만	49	3.1276
							15-20년 미만	33	3.0379
HEXACO 개방성	집단-간	4.904	5	.981	1.438	.212	1년 미만	88	3.0795
							1-3년 미만	12	3.0833
							3-5년 미만	13	3.5641
							5-10년 미만	13	3.5641
	집단-내	137.762	202	.682			10-15년 미만	49	3.1565
							15-20년 미만	33	3.1313
성격강점 인간애	집단-간	2.080	5	.416	1.976	.084	1년 미만	88	3.0682
							1-3년 미만	12	2.7361
							3-5년 미만	13	3.0769
							5-10년 미만	13	3.2821
	집단-내	42.530	202	.211			10-15년 미만	49	3.1054
							15-20년 미만	33	3.1313
성격강점 지혜	집단-간	.313	5	.063	.123	.987	1년 미만	88	3.0189
							1-3년 미만	12	3.0278
							3-5년 미만	13	3.0385
							5-10년 미만	13	3.1667
	집단-내	103.105	202	.510			10-15년 미만	49	3.0408
							15-20년 미만	33	2.9899
성격강점 용기	집단-간	.854	5	.171	.798	.552	1년 미만	88	3.1458
							1-3년 미만	12	3.3472
							3-5년 미만	13	3.0641
							5-10년 미만	13	3.2564
	집단-내	43.243	202	.214			10-15년 미만	49	3.0986
							15-20년 미만	33	3.1263
성격강점 절제	집단-간	4.956	5	.991	3.968**	.002**	1년 미만	88	3.2557
							1-3년 미만	12	2.8056
							3-5년 미만	13	3.3974
							5-10년 미만	13	3.0385
	집단-내	50.458	202	.250			10-15년 미만	49	3.0782
							15-20년 미만	33	2.9444

자기성찰 자기조절	집단-간	3.436	5	.687	1.191	.315	1년 미만	88	3.9508
							1-3년 미만	12	3.9722
							3-5년 미만	13	3.8462
							5-10년 미만	13	4.0000
	집단-내	116.530	202	.577			10-15년 미만	49	3.6871
							15-20년 미만	33	3.6970
자기성찰 자기설계	집단-간	10.533	5	2.107	3.035*	.012*	1년 미만	88	3.9735
							1-3년 미만	12	3.8889
							3-5년 미만	13	4.0000
							5-10년 미만	13	4.0769
	집단-내	140.219	202	.694			10-15년 미만	49	3.6327
							15-20년 미만	33	3.4141
자기성찰 자기이해	집단-간	11.071	5	2.214	3.380**	.006**	1년 미만	88	3.9811
							1-3년 미만	12	4.0833
							3-5년 미만	13	3.8462
							5-10년 미만	13	4.0769
	집단-내	132.330	202	.655			10-15년 미만	49	3.5646
							15-20년 미만	33	3.4747
자기성찰 자기반성	집단-간	7.228	5	1.446	2.668*	.023*	1년 미만	88	3.9394
							1-3년 미만	12	4.1389
							3-5년 미만	13	4.0513
							5-10년 미만	13	4.0000
	집단-내	109.439	202	.542			10-15년 미만	49	3.6531
							15-20년 미만	33	3.5556
사회적바람직성 자기기만	집단-간	3.746	5	.749	1.577	.168	1년 미만	88	3.3011
							1-3년 미만	12	3.2500
							3-5년 미만	13	3.3462
							5-10년 미만	13	3.3077
	집단-내	95.974	202	.475			10-15년 미만	49	3.0969
							15-20년 미만	33	2.9621
사회적바람직성 인상관리	집단-간	3.703	5	.741	1.550	.176	1년 미만	88	3.3523
							1-3년 미만	12	3.2708
							3-5년 미만	13	3.1346
							5-10년 미만	13	3.1154
	집단-내	96.532	202	.478			10-15년 미만	49	3.0561
							15-20년 미만	33	3.0833

*p<.05, **p<0.01, ***p<0.001

일원분산분석 결과 도덕지능의 ‘존중’[F(5, 202) = 3.452. p<.01], ‘자제’[F(5, 202) = 2.820. p<.05], ‘공정’[F(5, 202) = 2.513. p<.05]에서 중국 거주 기간에 따른 집단의 평균 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사후 분석을 실시 한 결과 중국에 거주한 기간이 짧은 학생일수록 ‘존중’, ‘자제’, ‘공정’의 평균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성격 강점의 ‘절제’[F(5, 202) = 3.968. p<.01] 또한 중국 거주 기간에 따라 집단의 평균차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사후 분석 결과 중국에 거주한 기간이 짧은 학생일수록 ‘절제’의 평균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자기성찰지능은 관련된 요인 대부분이 중국 거주 기간에 따라 집단의 평균차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중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짧은 학생일수록 자기성찰지능의 ‘자기이해’[F(5, 202) = 3.380. p<.01], ‘자기설계’[F(5, 202) = 3.035. p<.05], ‘자기반성’[F(5, 202) = 2.668. p<.05] 평균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검사 결과는 탈북 청소년의 중국 거주 기간이 도덕적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시사한다. 일원분산분석 결과 중국 거주 기간이 10년 이상인 학생은 상대적으로 중국 거주 기간이 짧은 학생에 비해 전반적으로 도덕적 성격의 평균이 낮게 나타났다.

한편, 탈북 청소년의 한국 정착 기간이 도덕 지능을 비롯한 도덕적 성격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표 10 > 한국 정착기간과 도덕지능 일원배치분산분석

		제곱합	자유도	df	F	유의확률	중국거주기간	N	평균
도덕지능 관용	집단-간	5.470	5	1.094	1.030	.401	1년 미만	39	3.1282
							1-3년 미만	56	3.2786
							3-5년 미만	60	2.9200
							5-10년 미만	40	2.8850
	집단-내	214.567	202	1.062			10-15년 미만	12	2.9667
							15-20년 미만	1	3.4000
도덕지능 공정	집단-간	8.569	5	1.714	4.079	.002**	1년 미만	39	4.3333
							1-3년 미만	56	3.7723
							3-5년 미만	60	3.9458
							5-10년 미만	40	3.8563
	집단-내	84.865	202	.420			10-15년 미만	12	4.1667
							15-20년 미만	1	3.5000
도덕지능 존중	집단-간	3.462	5	.692	1.601	.161	1년 미만	39	3.8821
							1-3년 미만	56	3.6607
							3-5년 미만	60	3.6333
							5-10년 미만	40	3.8550
	집단-내	87.353	202	.432			10-15년 미만	12	4.0500
							15-20년 미만	1	3.8000
도덕지능 자제	집단-간	1.355	5	.271	.635	.673	1년 미만	39	3.8120
							1-3년 미만	56	3.6250
							3-5년 미만	60	3.6500
							5-10년 미만	40	3.5917
	집단-내	86.199	202	.427			10-15년 미만	12	3.7500
							15-20년 미만	1	4.0000
HEXACO 원만성	집단-간	3.491	5	.698	1.111	.356	1년 미만	39	3.4017
							1-3년 미만	56	3.1726
							3-5년 미만	60	3.2500
							5-10년 미만	40	3.1500
	집단-내	126.934	202	.628			10-15년 미만	12	3.6389
							15-20년 미만	1	3.0000
HEXACO 외향성	집단-간	2.837	5	.567	1.194	.313	1년 미만	39	3.0449
							1-3년 미만	56	3.1295
							3-5년 미만	60	3.2667
							5-10년 미만	40	3.3688
	집단-내	95.980	202	.475			10-15년 미만	12	3.3125
							15-20년 미만	1	3.5000
HEXACO 개방성	집단-간	5.773	5	1.155	1.704	.135	1년 미만	39	2.9402
							1-3년 미만	56	3.2202
							3-5년 미만	60	3.1556
							5-10년 미만	40	3.1833
	집단-내	136.894	202	.678			10-15년 미만	12	3.6944
							15-20년 미만	1	2.6667

성격강점 인간애	집단-간	2.687	5	.537	2.589	.027*	1년 미만	39	2.8974
							1-3년 미만	56	3.1667
							3-5년 미만	60	3.0278
							5-10년 미만	40	3.2208
	집단-내	41.924	202	.208			10-15년 미만	12	3.0972
							15-20년 미만	1	3.0000
성격강점 지혜	집단-간	3.935	5	.787	1.598	.162	1년 미만	39	2.9359
							1-3년 미만	56	3.2500
							3-5년 미만	60	2.9639
							5-10년 미만	40	2.9167
	집단-내	99.484	202	.492			10-15년 미만	12	3.0000
							15-20년 미만	1	3.3333
성격강점 용기	집단-간	.707	5	.141	.659	.655	1년 미만	39	3.1239
							1-3년 미만	56	3.1577
							3-5년 미만	60	3.1694
							5-10년 미만	40	3.0958
	집단-내	43.390	202	.215			10-15년 미만	12	3.2500
							15-20년 미만	1	2.5000
성격강점 절제	집단-간	.738	5	.148	.545	.742	1년 미만	39	3.1496
							1-3년 미만	56	3.1012
							3-5년 미만	60	3.1861
							5-10년 미만	40	3.1292
	집단-내	54.677	202	.271			10-15년 미만	12	2.9583
							15-20년 미만	1	3.5000
자기성찰 자기조절	집단-간	4.309	5	.862	1.505	.190	1년 미만	39	4.0085
							1-3년 미만	56	3.8631
							3-5년 미만	60	3.6444
							5-10년 미만	40	3.9000
	집단-내	115.657	202	.573			10-15년 미만	12	4.0833
							15-20년 미만	1	3.6667
자기성찰 자기설계	집단-간	7.212	5	1.442	2.030	.076	1년 미만	39	3.9829
							1-3년 미만	56	3.5476
							3-5년 미만	60	3.7778
							5-10년 미만	40	4.0250
	집단-내	143.540	202	.711			10-15년 미만	12	3.8333
							15-20년 미만	1	4.3333
자기성찰 자기이해	집단-간	12.536	5	2.507	3.870	.002**	1년 미만	39	4.2222
							1-3년 미만	56	3.6310
							3-5년 미만	60	3.5889
							5-10년 미만	40	3.8917
	집단-내	130.865	202	.648			10-15년 미만	12	4.0833
							15-20년 미만	1	3.6667
자기성찰 자기반성	집단-간	4.403	5	.881	1.585	.166	1년 미만	39	4.0598
							1-3년 미만	56	3.7917
							3-5년 미만	60	3.6778
							5-10년 미만	40	3.8500
	집단-내	112.263	202	.556			10-15년 미만	12	4.0556
							15-20년 미만	1	3.3333
사회적바람직성 자기기만	집단-간	4.327	5	.865	1.832	.108	1년 미만	39	3.4808
							1-3년 미만	56	3.0580
							3-5년 미만	60	3.1625
							5-10년 미만	40	3.1938
	집단-내	95.393	202	.472			10-15년 미만	12	3.1458
							15-20년 미만	1	3.2500

사회적바람직성 인상관리	집단-간	4.534	5	.907	1.914	.093	1년 미만	39	3.3462
							1-3년 미만	56	2.9821
							3-5년 미만	60	3.2458
							5-10년 미만	40	3.2813
	집단-내	95.701	202	.474			10-15년 미만	12	3.3958
							15-20년 미만	1	2.7500

*p<.05, **p<0.01, ***p<0.001

일원분산분석 결과 도덕적 성격의 일부 요인에서 한국 정착 기간에 따른 집단의 평균 간 차이가 유의미 하게 나타났다. 단, 한국 정착 기간이 15-20년 미만이 응답자 1인은 해석에 반영하지 않았다. 분석 결과 도덕지능의 '공정'[F(5, 202) = 4.079. p<.01]에서 한국 정착 기간에 따른 집단의 평균 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사후 분석을 실시 한 결과 한국에 정착한 기간이 긴 학생일수록 '공정'의 평균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성격 강점의 '인간애'[F(5, 202) = 2.589. p<.05]에서도 한국 정착 기간에 따라 집단의 평균 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한국에 정착한 기간이 긴 학생일수록 '인간애'의 평균 점수가 높았다. 자기성찰지능의 '자기이해'[F(5, 202) = 3.870. p<.01] 또한 한국에 정착한 기간이 긴 학생에게서 더 높은 점수가 나타났다.

이러한 검사 결과는 탈북 청소년의 한국 정착 기간이 도덕적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시사한다. 일원분산분석 결과 한국 정착 기간이 3년 미만인 학생은 상대적으로 한국 정착 기간이 3년 이상인 학생에 비해 전반적으로 도덕적 성격의 평균이 낮게 나타났다.

6. 성격 특성과 도덕 지능과 간의 상관분석

탈북 청소년의 도덕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생물 발생적, 사회 발생적, 개체 발생적 성격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도덕지능과 HEXACO 성격, 성격 강점, 자기성찰지능을 상관관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표 11 > 도덕지능과 성격 특성 간의 상관분석

			도덕지능 관용	도덕지능 공정	도덕지능 존중	도덕지능 자제
HEXACO	원만성	Pearson 상관	-.003	.372**	.205**	.305**
		유의확률 (양측)	.961	.000	.003	.000
	외향성	Pearson 상관	.142*	.153*	.327**	.146*
		유의확률 (양측)	.041	.027	.000	.035
	개방성	Pearson 상관	-.148*	.082	.096	.082
		유의확률 (양측)	.033	.239	.166	.242
성격강점	인간애	Pearson 상관	.327**	-.159*	.063	.004
		유의확률 (양측)	.000	.022	.363	.949
	지혜	Pearson 상관	.679**	-.070	.216**	.184**
		유의확률 (양측)	.000	.313	.002	.008
	용기	Pearson 상관	.153*	.106	.169*	.079
		유의확률 (양측)	.027	.128	.015	.257
	절제	Pearson 상관	.196**	.066	.130	-.019
		유의확률 (양측)	.005	.342	.062	.787
자기성찰	자기조절	Pearson 상관	-.023	.503**	.431**	.333**
		유의확률 (양측)	.741	.000	.000	.000
	자기설계	Pearson 상관	-.134	.464**	.381**	.233**
		유의확률 (양측)	.053	.000	.000	.001
	자기이해	Pearson 상관	.240**	.331**	.439**	.285**
		유의확률 (양측)	.000	.000	.000	.000
	자기반성	Pearson 상관	.239**	.438**	.397**	.436**
		유의확률 (양측)	.001	.000	.000	.000
사회적바람직성	자기기만	Pearson 상관	.104	.296**	.322**	.133
		유의확률 (양측)	.135	.000	.000	.055
	인상관리	Pearson 상관	-.086	.090	.173*	.132
		유의확률 (양측)	.219	.194	.012	.057

*p<.05, **p<0.01, ***p<0.001

상관관계 분석 결과 탈북 청소년의 도덕 지능은 HEXACO 성격 특질의 ‘원만성’과 강한 상관관계를 갖는다. 원만성은 ‘다른 사람과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동기’에서 나온다.[20] 원만성은 가정이나 직장과 같이 사회적으로 결속된 조직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쉽게 해주는 특성이다. 탈북 청소년의 원만성은 모든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꺼이 타협하는 공정함, 사람이나 물건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존중, 화가 나거나 좌절했을 때에도 이성을 잃지 않고 대처하는 자제력이 있는 행동 방식들을 촉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탈북 청소년의 도덕 지능은 성격 강점의 ‘지혜’와 강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지혜’는 정보의 습득과 사용을 포함하는 인지적 강점 즉, 판단력, 통찰, 호기심이다. ‘판단력’은 모든 상황과 조건들을 검증하고 검증을 통해 사고하는 것이다. ‘호기심’은 경험과 지식을 위한 한 사람의 내적 욕구를 나타낸다. ‘통찰’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충분히 납득될 수 있는 방식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다. 탈북 청소년의 지혜는 다른 사람의 존엄과 권리를 존중하는 관용의 행동뿐만 아니라 존중, 자제력의 행동 범위를 넓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탈북 청소년에게 상대적으로 낮은 도덕 지능이 ‘관용’이었는데, 상관관계 분석 결과 그들의 관용은 인간애, 지혜, 절제와 같은 성격 강점과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눈에 띄는 점은 탈북 청소년의 도덕지능이 자기성찰지능의 모든 요인과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자신의 강점과 단점, 상황에 따른 자신의 정서를 이해하는 ‘자기이해’ 능력과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잘못이나 부족함이 없는지 돌아보는 ‘자기반성’ 능력은 관용, 공정, 존중, 자제의 행동 강도를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며 충동을 통제하는 ‘자기조절’ 능력과 자신의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고 동기화하는 ‘자기설계’ 능력 또한 관용을 제외한 공정, 존중, 자제의 행동에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바람직성 검사에서 탈북 청소년의 자기기만은 즉,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과장되고 긍정적으로 표시하려는 경향은 공정과 존중의 행동에서 특히 강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 W. G. Graziano & R. M. Tobin (2002). “Agreeableness: Dimension of personality or social desirability artifact?” *Journal of personality*. 70(5), p. 6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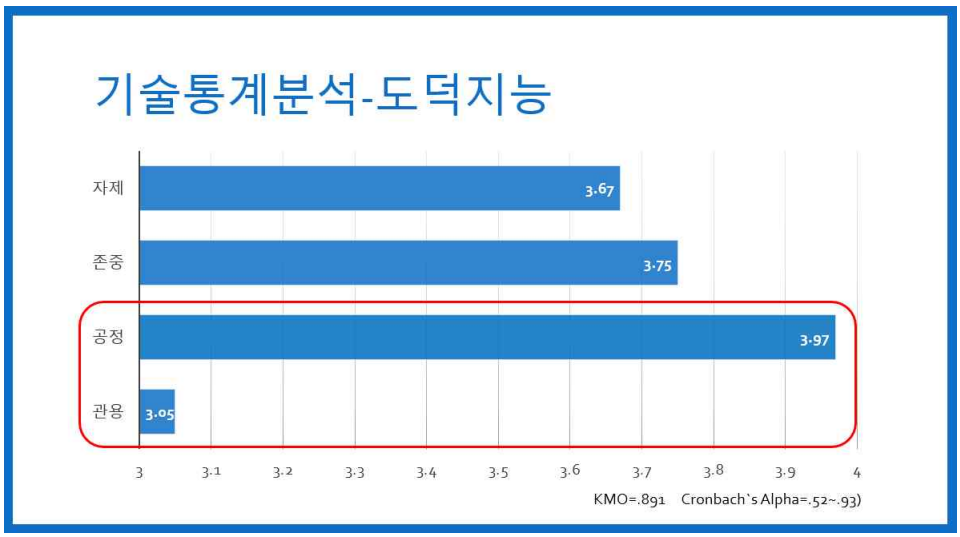
제4장 결과 분석

제1절 탈북 청소년의 도덕적 성격 특성

1. 공정성에서 높은 도덕지능 발휘

도덕지능은 확고한 윤리적 신념에 따라 올바르고 부끄럽지 않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다. 도덕지능은 부정적인 압력에 맞서는데 필요한 힘이면서 동시에 올바른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힘이 된다.

< 그림 1 > 탈북 청소년의 도덕지능



탈북 청소년의 도덕지능을 '청소년 도덕 지능 검사도구'를 사용해 분석한 결과 공정성의 도덕지능이 높게 나타났다. 도덕 지능의 '공정성'은 편견 없이 올바르고 정정당당하게 행동하는 것이다. 공정한 사람들은 규칙에 맞게 행동하고 판단을 내리기 전에 모든 입장의 의견을 편견 없이 다각도에서 경청한다. 그들은 부당하게 대우받는 사람들을 변호하고 인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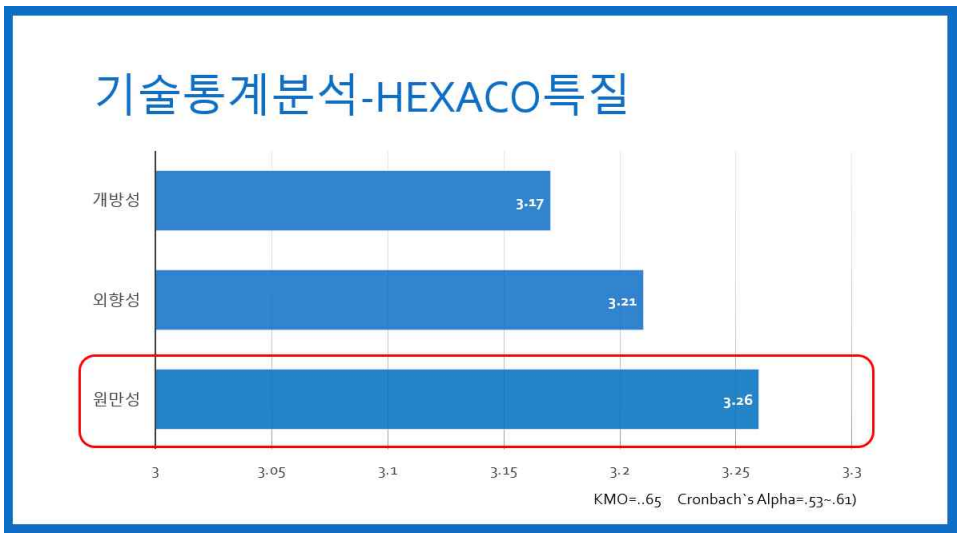
문화, 외모, 성별, 빈부, 능력, 신념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동등하게 대한다. 그들은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상황에 이의를 제기하며, 적절치 못한 상황에 처한 타인들을 기꺼이 돕는다. 그들은 그것이 올바르고 훌륭한 행동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다.

반면 탈북 청소년의 도덕지능 분석에서 관용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도덕지능의 '관용'은 다른 사람의 존엄과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다. 관용적인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사랑받고 공평하게 대우받고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인종, 성별, 외모, 문화, 신념, 능력, 성적 취향과 상관없이 개개인을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한다. 관용적인 사람들은 자신만의 편협한 신념에 치우치지 않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며 넓은 마음으로 타인의 견해를 존중한다. 따라서 그들은 다른 사람이 실수했을 경우에도 함부로 비난하지 않는다.

2. 원만성에서 높은 성격 특질을 발휘

성격 특질은 진화적 사회 환경에서 생존에 적합하도록 변이된 것이며, 신경생물학적 구조에 의해 작동하기 때문에 일관되게 유지되고 쉽게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생물발생의 성격 특질에 대한 이해는 개인의 안정적인 행동 방식을 예측하는데 도움이 된다. 도덕 상황을 관찰하고 느끼고 해석하고 행동하는 방식은 성격 특질 조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 그림 2 > 탈북 청소년의 HEXACO 성격 특질



탈북 청소년의 성격 특질을 'HEXACO-PI'를 사용해 분석한 결과 원만성의 성격 특질이 높게 나타났다. 원만성은 '다른 사람과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동기'에서 나온다.[21] 원만성은 가정이나 직장과 같이 사회적으로 결속된 조직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쉽게 해주는 특성이다. 실제로 원만성이 높은 사람들은 '착하다', '다정하다', '협조적이다', '공감적이다', '따뜻하다', '믿음직하다', '배려 깊다', '친절하다', '너그럽다' 등의 수식어로 묘사된다. 원만성이 높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계속 실수하거나 나를 괴롭히더라도 싫은 소리를 하지 않고 용서한다.

원만성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계산을 하거나 칭찬을 받으려는 욕심 때문에 이타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그들의 이타적인 행동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우러나는 것이다. 그들은 갈등이 생겼을 때에도 가능하면 논쟁을 피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는 거친 말들을 하지 않는다. 어쩔 수 없이 싸움에 이르게 되더라도 곧 갈등을 수습하고 상대에게 다가가 관계를 회복하려고 애쓴다. 이외에도 원만성이 높은 사람들은 솔직하다. 그들은 정직하고 개방적이며, 자신의 공을 내세우지 않는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도 상대가 상처받지 않게 정중하고 다정한 태도를 취한다. 이들이 누군가를 칭찬하며 듣기 좋은 말을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지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가 아니다.

< 그림 3 > 성격 특질과 도덕지능 간의 상관관계



			도덕지능 관용	도덕지능 공정	도덕지능 존중	도덕지능 자제
성격강점	원만성	Pearson 상관	-.003	.372**	.205**	.305**
		유의확률 (양측)	.961	.000	.003	.000
	외향성	Pearson 상관	.142*	.153*	.327**	.146*
		유의확률 (양측)	.041	.027	.000	.035
	개방성	Pearson 상관	-.148*	.082	.096	.082
		유의확률 (양측)	.033	.239	.166	.2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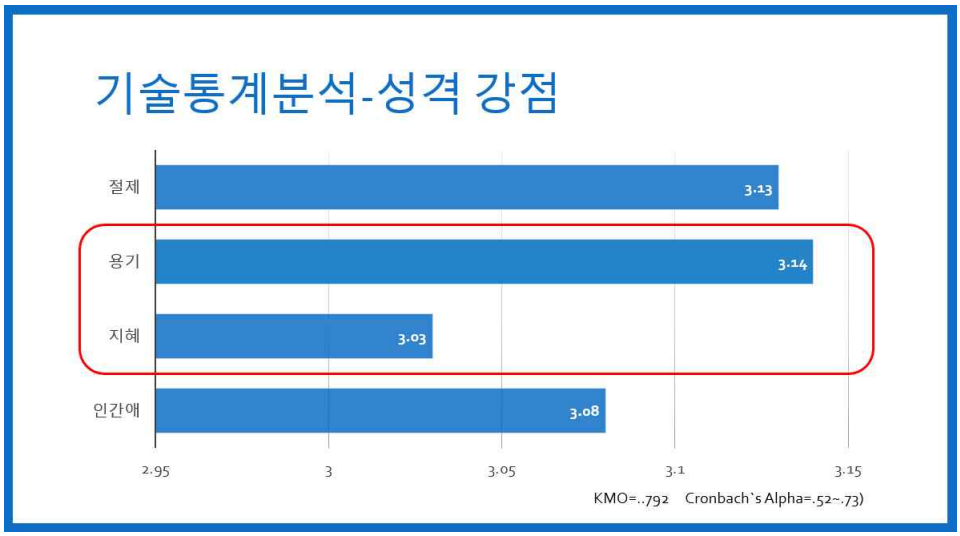
21) W. G. Graziano & R. M. Tobin (2002). "Agreeableness: Dimension of personality or social desirability artifact?" *Journal of personality*. 70(5), p. 695.

탈북 청소년의 높은 원만성은 '모든 사람들의 욕구를 동등하게 충족시키기 위해 기꺼이 타협하는 행동', '화가 나거나 좌절했을 때에도 이성을 잃지 않고 대처하는 행동'과 같은 공정하고 자제력 있는 행동 방식들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3. 용기에서 탁월한 강점 발휘

성격 강점은 가치 있는 성과를 위해 최적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역량이다. 성격 강점은 진화적 적응의 발달적 형태로 시간, 상황, 환경, 역할, 맥락에 적응적이며, 경험이나 학습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 자주 활성화되고 보상을 통해 강화된 성격 강점은 개인의 도덕 가치나 의도, 목표, 열망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도움이 된다. 성격 강점에 대한 이해는 개인의 적응적인 도덕 행동의 범위를 예측하는데 도움이 된다. 도덕 상황을 인식하고, 판단하고, 가치를 부여하고, 전략을 세우는 도덕 행동의 범위는 개인의 성격 강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림 4 > 탈북 청소년의 성격 강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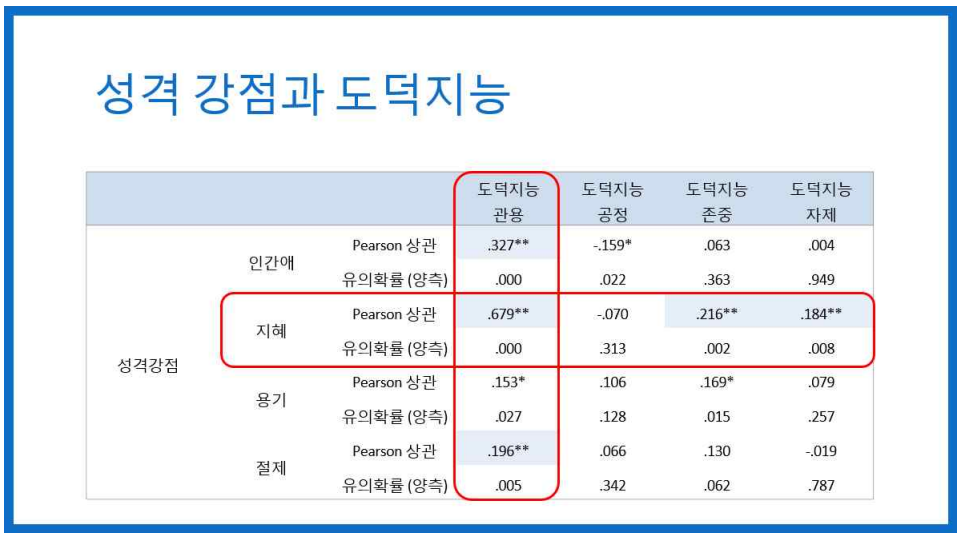


탈북 청소년의 강점을 'KICS'를 사용해 분석한 결과 용기의 강점이 높게 나타났다. 성격의 긍정적 특질로서 용기는 고통과 좌절에도 의지를 굽히지 않는 강점으로서 용맹, 인내, 진실성, 열정으로 구성된다. '용맹'은 위협, 도전, 난관, 고통 등에 의해 위축되지 않고, 반대에 부딪히더라도 무엇이 옳은지 분명하게 말하고, 자신의 신념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인내'

는 시작한 일을 끝마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프로젝트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시기적절하게 완수하며, 일을 할 때 대단한 집중력을 보이고, 과제를 완수하는 것에서 큰 만족감을 얻는 것이다. '진실성'은 정직하게 진실을 말할 뿐만 아니라 진솔한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고, 견실하며 가식적이지 않은 것이다. '열정'은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흥분과 활기를 갖고 다가가고, 어떤 것이든 어중간하게 하거나 건성으로 하는 법이 없는 것이다.

반면 탈북 청소년의 강점 분석에서 지혜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지혜는 곰곰이 생각하고 더 폭 넓은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역량이다. 성격의 긍정적 특질로서 지혜는 정보의 습득과 사용을 포함하는 인지적 강점 즉, 판단력, 통찰, 호기심으로 구성된다. '판단력'은 모든 상황과 조건들을 검증하고 검증을 통해 사고하는 것이다. 판단력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과 반대되는 타인의 의견일지라도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면 심사숙고하고 자신의 의견을 수정할 의향이 있다. '호기심'은 경험과 지식을 위한 한 사람의 내적 욕구를 나타낸다. 호기심이 강한 사람들은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도록 동기화된다. 새로운 대인관계 경험들이 통합된 결과로서 생겨난 감정과 역량들은 그 이상의 긍정적 효과를 일으킨다. '통찰'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충분히 납득될 수 있는 방식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다. 통찰력이 높은 사람들은 선을 위해 또는 자신과 타인의 복지를 위해 삶과 행동에 대한 지혜로운 조언을 제공할 수 있다.

< 그림 5 > 성격 강점과 도덕지능 간의 상관관계



			도덕지능 관용	도덕지능 공정	도덕지능 존중	도덕지능 자제
성격강점	인간애	Pearson 상관	.327**	-.159*	.063	.004
		유의확률 (양측)	.000	.022	.363	.949
	지혜	Pearson 상관	.679**	-.070	.216**	.184**
		유의확률 (양측)	.000	.313	.002	.008
	용기	Pearson 상관	.153*	.106	.169*	.079
		유의확률 (양측)	.027	.128	.015	.257
	절제	Pearson 상관	.196**	.066	.130	-.019
		유의확률 (양측)	.005	.342	.062	.7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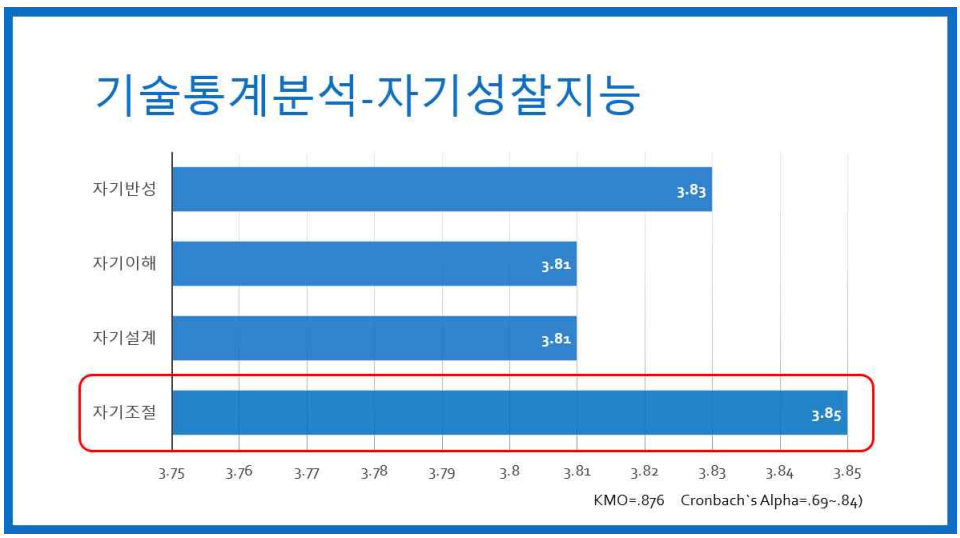
탈북 청소년의 높은 용기 강점은 '증오와 폭력, 완고함을 줄이고 친절과 존중, 이해심으로

타인을 대하는 행동', '다른 사람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권리를 존중하려는 행동'과 같은 '관용'과 '존중'의 행동 범위들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높은 용기의 강점보다 주목할 점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지혜의 강점이며, 지혜의 강점과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관용'의 도덕지능이다. 이것은 탈북 청소년의 낮은 지혜가 그들의 낮은 '관용'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4. 자기조절을 위한 끊임없는 성찰

자기성찰지능은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개인의 자기실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지능이다. 사람들마다 자신의 감정과 능력을 인식하고 조절하고 자신의 미래를 인식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능력이 서로 다르다. 자기성찰은 개인이 자신과 사회를 폭넓게 이해하고 더 생산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다. 자기성찰은 자신에 대한 정확인 인식을 토대로 변화와 발전을 모색하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교육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 그림 6 > 탈북 청소년의 자기성찰지능



탈북 청소년의 자기성찰지능을 '자기성찰지능 척도'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자기조절 지능이 높게 나타났다. 자기조절 지능은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충동적인 정서와 행동을 통제하는 능력이다. 자기조절 능력이 있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적합한 행동을 인식하고 자신

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이다. Kopp(1992)는 자기조절 능력을 환경의 요구에 적절하게 대처하고 상황적 요구에 맞게 활동의 시작과 종결을 스스로 결정하고, 언어적 신체적 활동의 강도 및 빈도와 지속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한다. 또한 목표에 적합하게 활동을 지연시키거나 외적 강화 요인 없이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해내는 능력으로 본다.

자기조절능력이 강한 사람은 금지된 행동이나 상황에 부절절한 행동을 자신의 의도나 계획에 따라 억제할 수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행동을 유보하거나, 만족을 지연시키는 등의 자기관리 능력을 보여준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적합한 행동이 무엇인지 인식하고 그것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점검한다. 이렇게 볼 때 자기조절 능력은 개인을 사회화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교육적 의미를 갖는다. 개인은 자기조절을 통해 생각이나 감정을 상황에 맞게 잘 조절하고, 화가 나더라도 다른 사람의 기분을 고려하여 스스로 진정하며, 문제를 침착하게 해결한다. 또한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전체를 위해 맞춰줄 수 있다.

반면 탈북 청소년의 자기성찰지능 분석에서 자기설계와 자기이해의 지능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자기설계 지능은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고 미래를 위한 목표를 설정하는 능력이다. 개인의 목표는 개인이 성취하고자 하는 지향점인 동시에 개인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동기화하는 촉진제가 된다. 셀리그먼에 따르면 삶의 목적과 의미를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며, 자기실현을 이룬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삶의 목적에 맞게 자신의 미래를 설계한 사람들이다[22]. 자기성찰지능이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자기실현이라는 점에서 볼 때, 자기실현을 위해 목표를 설정하고 미래를 설계하며 실천하려는 의지인 자기설계는 중요한 교육적 의미를 지닌다.

자기이해 지능은 자기성찰지능에서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요인으로서 자신의 정서와 능력을 인식하고 자신의 상태를 인지하고 자각하는 능력이다. 자기이해는 자신의 감정에 접근할 수 있고 자신의 정서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다.[23] 자기이해 능력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 변화를 잘 알아차린다. 그러나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면 남을 이해하지 못하고, 남을 이해하지 못하면 자신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자신의 정서와 능력에 대한 이해는 타인의 정서와 능력을 공감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나아가 타인에 대해 깊이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공감하기 어렵다.

---

22) M. E. Seligman. “Why is there so much depression today? The waxing of the individual and the waning of the commons”, In R. E. Ingram. (Ed.). (2012). *Contemporary psychological approaches to depression: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New York: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pp. 1-9.

23) T. Armstrong (1994). “Multiple Intelligences: Seven Ways to Approach Curriculum”, *Educational Leadership*. 52(3), p. 26.

< 그림 7 > 자기성찰지능과 도덕지능 간의 상관관계



			도덕지능 관용	도덕지능 공정	도덕지능 존중	도덕지능 자제
자기성찰	자기조절	Pearson 상관	-.023	.503**	.431**	.333**
		유의확률 (양측)	.741	.000	.000	.000
	자기설계	Pearson 상관	-.134	.464**	.381**	.233**
		유의확률 (양측)	.053	.000	.000	.001
	자기이해	Pearson 상관	.240**	.331**	.439**	.285**
		유의확률 (양측)	.000	.000	.000	.000
	자기반성	Pearson 상관	.239**	.438**	.397**	.436**
		유의확률 (양측)	.001	.000	.000	.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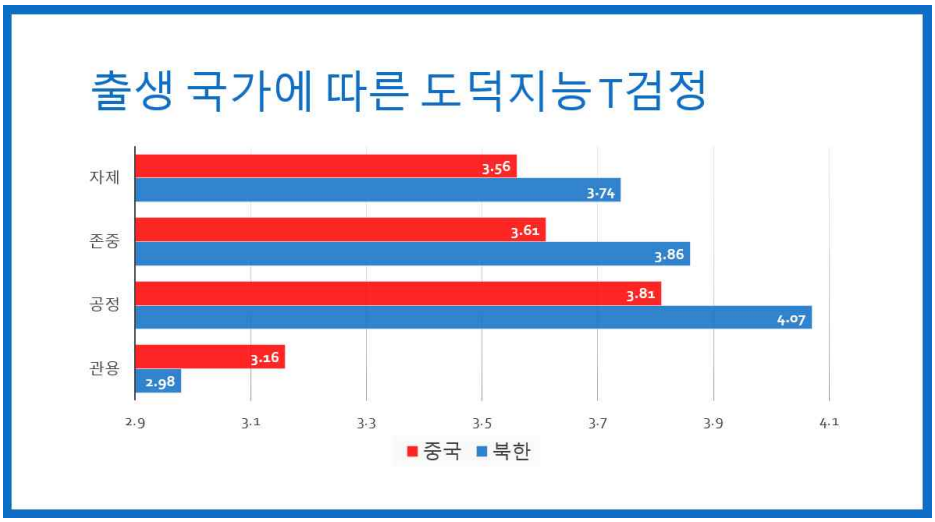
탈북 청소년의 높은 자기조절 능력은 '사회적으로 적합한 행동이 무엇인지 인식하고 그것에 의해 자신의 행동을 점검하는 행동', '화가 나더라도 다른 사람의 기분을 고려하여 스스로 진정하여 문제를 침착하게 해결하는 행동'과 같은 '공정'과 '존중'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탈북 청소년의 자기성찰지능 중에서 높은 자기조절 능력 못지않게 주목되는 것은 그들의 상대적으로 낮은 '자기이해' 및 '자기반성' 지능이며, '자기이해' 및 '자기반성' 지능과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관용'의 도덕지능이다. 이것은 탈북 청소년의 낮은 '자기이해' 및 '자기반성'이 그들의 낮은 '관용'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제2절 탈북배경 및 정착환경에 따른 도덕적 성격 특성

1. 출생 국가와 도덕적 성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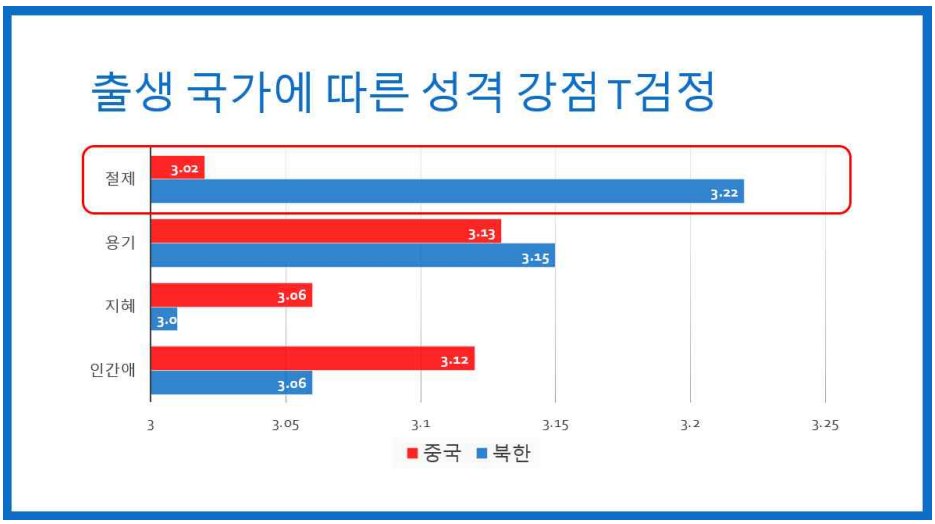
탈북 청소년의 출생 국가와 도덕적 성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출생 국가가 탈북 청소년의 도덕지능, 성격 강점, 자기성찰지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림 8 > 출생 국가와 도덕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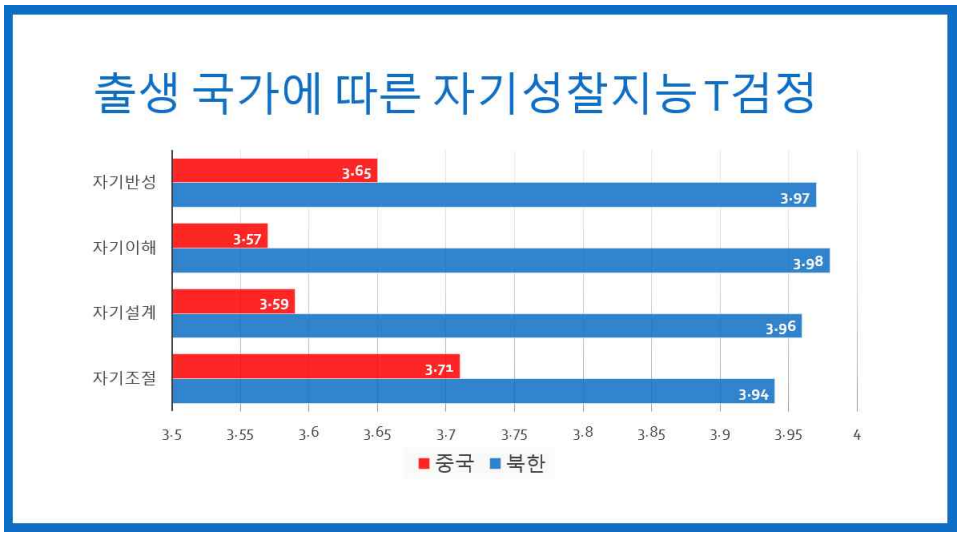
도덕지능에서 북한에서 태어난 학생은 중국에서 태어난 학생에 비해 '다른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고 그들의 권리를 생각하는' '공정'한 행동, '다른 사람을 헐뜯거나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는' '존중'하는 행동, 스스로의 욕구와 충동을 조절할 수 있는 '자제'의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그림 9 > 출생 국가와 성격 강점



성격 강점에서 북한에서 태어난 청소년이 중국에서 태어난 청소년에 비해 결심한 행동을 실천하기 위해 자신의 욕구와 정서를 다스릴 줄 아는 '절제'의 강점과 고통과 좌절에도 용기를 굽히지 않는 '용기'의 강점에서 높은 평균을 나타냈다. 반면, 곰곰이 생각하고 더 폭넓은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지혜'의 강점과 다른 사람의 감정에 관심을 갖고 스스로 나서서 이웃을 돕는 '인간애'의 강점은 중국에서 태어난 청소년이 북한에서 태어난 청소년에 비해 높은 평균을 나타냈다.

< 그림 10 > 출생 국가와 자기성찰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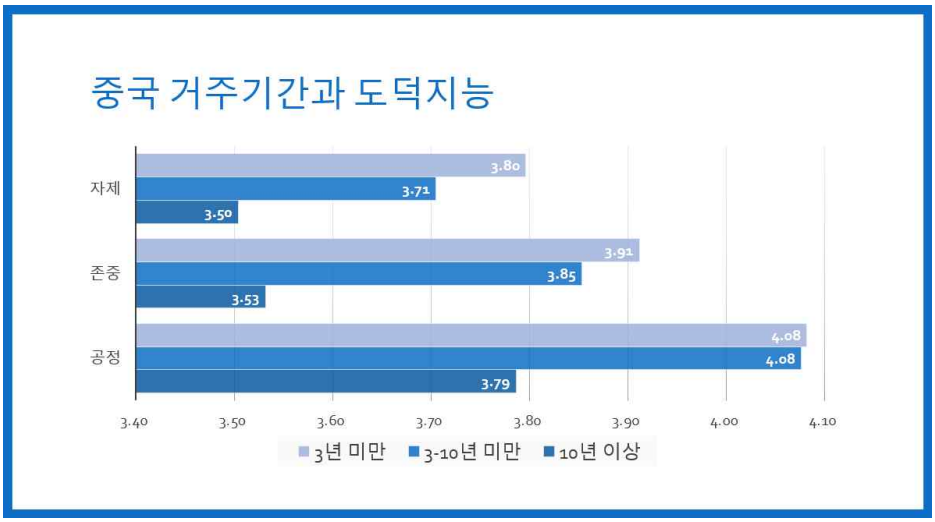


자기성찰지능에서 북한에서 태어난 청소년이 중국에서 태어난 청소년에 비해 '자신의 강점과 단점, 상황에 따른 자신의 정서를 이해'하고, '자신의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고',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잘못이나 부족함이 없는지 돌아보고', '자신의 정서와 행동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모든 능력에서 높은 평균을 나타냈다.

2. 중국 거주 기간과 도덕적 성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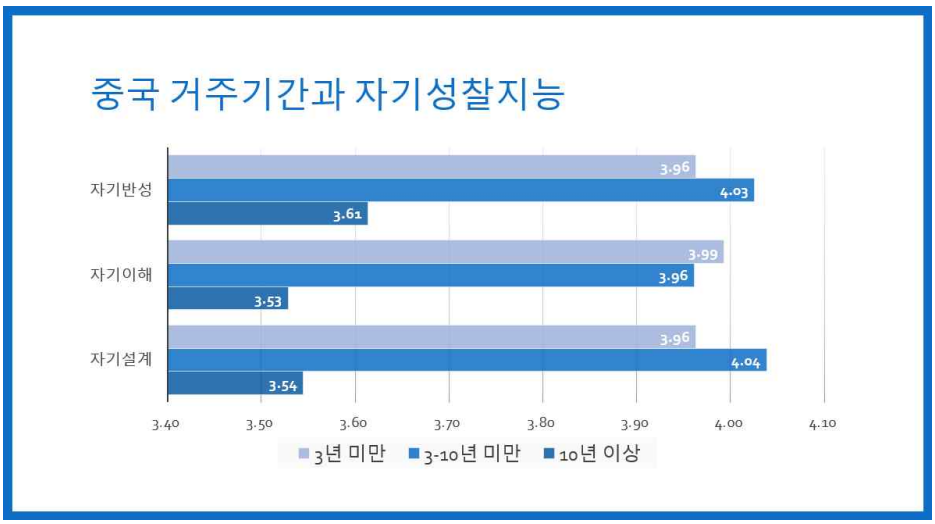
탈북 청소년의 중국 거주기간과 한국 정착기간에 따른 도덕적 성격을 변화를 분석한 결과, 중국 거주기간과 한국 정착기간이 탈북 청소년의 도덕지능, 성격 강점, 자기성찰지능의 일부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림 11 > 중국 거주기간과 도덕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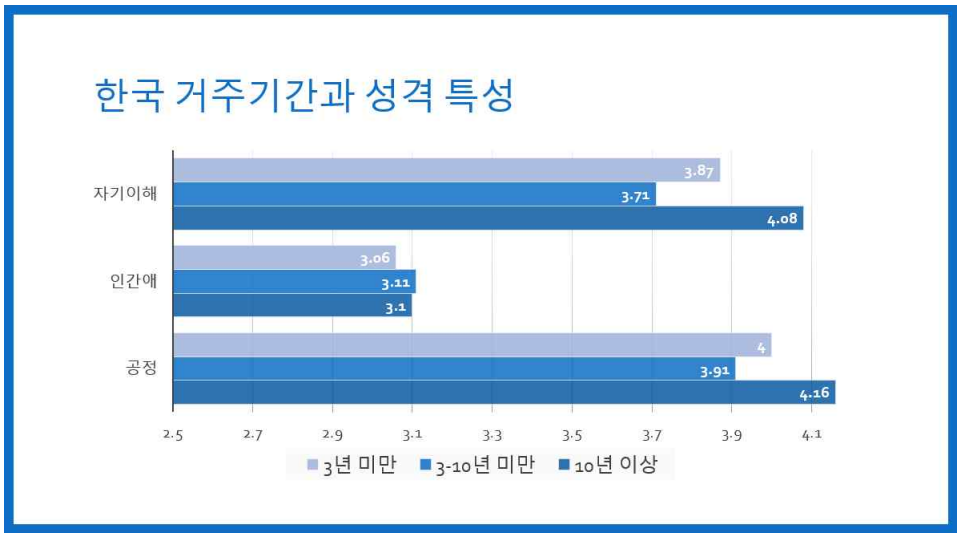
중국 거주기간 별로 탈북 청소년의 도덕지능을 분석한 결과 중국 거주기간이 길수록 도덕지능의 '공정', '존중', '자제'가 낮은 평균을 나타냈으며, 중국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이 되면 더욱 급격히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 거주기간이 탈북 청소년의 도덕지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그림 12 > 중국 거주기간과 자기성찰지능



중국 거주기간 별로 탈북 청소년의 도덕지능을 분석한 결과, 중국 거주기간이 길수록 자기성찰지능의 '자기이해'와 '자기반성' 능력이 낮은 평균을 나타냈다. 특히, 중국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이 되면서 급격이 낮아졌다. 탈북 청소년의 '자기이해'와 '자기반성'이 도덕지능의 '관용'과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음을 고려할 때, 탈북 청소년의 낮은 '관용' 또한 중국 거주기간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그림 13 > 한국 정착기간과 성격 특성



한국 정착기간에 따라 탈북 청소년의 도덕지능을 분석한 결과 한국 정착기간에 따라 도덕적 성격 특성이 다르게 나타났다. 도덕지능의 '공정'과 자기성찰지능의 '자기이해'의 경우 한국 정착기간이 3년 미만인 탈북 청소년보다 3년에서 10년 미만인 탈북 청소년의 평균이 더 낮게 나타나긴 하였으나, 한국 정착기간이 10년 이상이 되면서 다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한국 정착기간이 탈북 청소년의 도덕지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제5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탈북 청소년의 도덕적 성격 강점

본 연구는 탈북 청소년들의 도덕적 성격 특성을 탈북배경 및 정착환경을 변인으로 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통일교육을 위한 실증적인 객관적 자료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탈북 청소년의 인성 및 도덕성을 구성하는 심리적 토대를 생물발생 차원의 도덕성향, 사회발생 차원의 도덕도식, 개체발생 차원의 도덕정체성으로 구분하여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심리검사 도구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몇 가지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인구 통계학적 구성으로 보았을 때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 청소년의 만 나이는 14~27세에 분표해 있었으며, 평균 나이는 18.48세로 한국 고등학교 학생의 연령에 비해 높은 연령의 학생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출생지를 살펴보면 북한 출생 청소년이 중국 출생 청소년에 비해 16.4% 더 많았다. 탈북 청소년은 평균적으로 중국에 8.24년 거주했던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에 평균적으로 5,32년 정착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 청소년의 동거 가족 유형은 엄마와 단둘이 사는 유형이 28.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엄마 아빠와 함께 사는 유형(14.9%), 엄마 형제와 함께 사는 유형(12%)이 뒤를 이었다.

탈북 청소년의 도덕지능을 검사한 결과 자제, 존중, 공정, 관용의 도덕지능이 신뢰도 있게 발견되었으며, 그중 공정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공정함은 편견 없이 올바르고 정정당당하게 행동하는 것이다. 탈북 청소년의 공정에 대한 높은 역량은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 가능하다. 하나는 북한이 교육을 통해 중시하는 가치들이 비록 일방적이고 획일적이며 타율적인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가 '모든 인민이 잘 사는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며 그러한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정의를 지키고 평등을 통해 복지 이념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 고등중학교 『공산주의도덕』 교과서에서 제시하는 바람직한 인간상 또한 '정의의 인간' 또는 '공정한 인간'이다(홍성찬, 2003). 공정한 인간은 언제나 정의롭고 의협심이 강하며 의리가 있고 공명정대하게 행동하는 인간형을 말한다.

다른 하나는 탈북 및 정착 과정에서 탈북자로서 느껴야 했던 부당한 대우와 편견 때문일 수 있다. 탈북 청소년들은 부당하게 대우받는 사람들을 변호하고 인종, 문화, 외모, 성별,

빈부, 능력, 신념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동등하게 대하는 것을 중시한다. 그들은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상황에 이의를 제기하며, 적절치 못한 상황에 처한 타인들을 기꺼이 돕는다. 그들은 그것이 올바르고 훌륭한 행동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다.

마지막으로 공정은 자기성찰지능과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다. 자기성찰지능은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모든 지능의 작용에서 기본이 되고 다른 지능들을 활성화하는 동인이 되며 개인의 자기실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지능이다. 자기성찰지능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자신이 사용해야 할 능력을 인식하고 그것을 알맞은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자기성찰지능은 자아가 형성되는 과정을 거치며 점점 발달한다. 자기성찰지능의 계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과 기회를 갖는 것이다. 그러한 탓에 사춘기 시기에 가장 활발하게 계발된다. 이 시기 자신과 주변, 미래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며 자신만의 자아관을 만들어 간다. 그 결과 한국 고등학생들의 도덕지능 중에서도 공정이 가장 높은 요인으로 등장한다. 이렇게 볼 때 탈북 청소년의 높은 공정성은 탈북 청소년 집단의 특성이라기보다는 보편적인 청소년들의 특성으로 보인다.

한편, 탈북 청소년의 도덕지능을 검사한 결과 관용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관용은 편견, 선입견, 고정관념, 증오를 거부하고 타인의 인격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탈북 청소년의 지혜에 대한 낮은 역량은 또한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 가능하다. 하나는 북한 소년단 조직생활에서 가장 대표적인 회의인 생활총화 때문이다. 총화란 “사업이나 생활의 진행과 그 결과를 분석하고 결속 지으며 앞으로의 사업과 생활에 도움이 될 경험과 교훈을 찾는 것”을 말한다. 생활총화는 자아비판과 상호비판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생활총화는 자신의 생활과 행동을 김일성과 김정일의 말, 혹은 소년단원의 의무에 비추어 본인의 잘못한 점을 비판하고 다른 친구를 상호 비판하는 회의이다. 생활총화는 한 주간 생활한 것을 기준으로 매주 ‘토요 소년단의 날’에 약 45분(1교시) 동안 진행된다. 학생들은 누구나 빠짐없이 생활총화에 참가해야 하는데, 학생들은 생활총화 수첩에 매주 총화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생활총화를 통한 자아비판과 상호비판은 넓은 마음으로 타인의 견해를 존중하고 타인의 인격을 소중히 여기는 관용의 수준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하나는 한국 정착과정에서 경험한 편견과 좌절로 인해 발생한 사회에 대한 불신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부정적 경험은 사회에 대한 증오와 폭력, 완고함을 증폭시키고, 타인을 친절과 존중, 이해심을 갖고 대하는데 방해가 된다. 관용이 낮은 사람은 자신만의 편협한 신념에 치우쳐 편견, 선입견, 고정관념을 갖게 되고 인간을 인종, 성별, 외모, 문화, 신념, 능력에 따라 차별하고 증오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관용은 성격 강점의 지혜, 인간애, 절제와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다. 성격

강점이 시간, 상황, 환경, 역할, 맥락에 적응적이며, 경험이나 학습에 따라 변화될 수 있고, 보상을 통해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그들의 탈북 및 정착 환경이 관용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특히 관용이 성격 강점의 지혜와 .68의 상관계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때 탈북 청소년의 낮은 지혜가 관용의 수준을 낮추는 원인으로 고려될 수 있다. 지혜의 강점은 창의성, 호기심, 학구열, 판단력, 통찰로 구성된다. 이러한 지혜의 강점은 지적이고, 문화적, 미적인 자극의 기회를 많이 제공하는 가정환경과 융통성 있고 자유로운 탐구를 지지하는 학교 환경, 사람-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해 촉진된다.

제2절 탈북 청소년 교육적 지원 방안

탈북 청소년들의 도덕성은 탈북민이라는 집단으로서의 특수성을 갖기 보다는 그들이 처한 상황과 맥락에 따른 개인차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탈북 청소년과 한국 청소년의 도덕 지능을 비교분석한 결과 두 집단 간에 나타나는 차이는 탈북 청소년들 간에 나타나는 차이보다 크지 않았다. 오히려 탈북 청소년의 도덕적 특성은 개인이 속한 사회 문화적 맥락과 환경, 상호작용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다올 통일 시대의 일원으로서 탈북 학생들을 위한 교육적 접근 방안에 중용한 시사점을 준다.

탈북 청소년의 도덕성 발달은 한국 청소년의 도덕성 발달과 유사한 보편성을 갖는다. 그러나 탈북 청소년으로서 그들의 집단 안에는 탈북배경 및 정착과정, 교육환경에 따른 도덕성 발달의 차이가 존재했다. 이것은 탈북 청소년이 갖고 있을 것으로 여겨졌던 문화적 특수성이 사실은 실재에 근거하지 않은 편견과 고정관념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그러한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인해 탈북 청소년 개인의 특수성과 발달 가능성이 외면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통일 시대의 일원인 탈북 청소년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탈북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과 고정관념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 방안 마련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편견은 사람들의 신념체계에 너무 깊이 자리 잡고 있고, 일상생활과 너무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은 뒷받침과 격려를 받고 있기 때문에 태도의 변화를 위한 정보 캠페인만으로는 편견이 줄어들기 어렵다. 오히려 행동 변화를 통해 태도 변화가 가능하다. 즉, 직접 서로 접촉하게 되면 편견을 가진 사람들은 고정관념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경험한 실체를 통해 마침내 잘 이해하게 된다. 인간은 불가피성의 심리 기제로 인해 자신의 편견적 태도를 변화시킨다. 가령, 접촉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내가 싫어하는 태도를 유지한다는 것은 인지부조화를 일으킨다. 따라서 부조화를 감소시키기 위해 자신이 생각만큼 싫어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확신하게 된다. 그 결과 편견 대상자의 장점을 찾고 단점을

무시하면서 자신의 편견적 태도를 수정해 간다.

궁극적으로 민족 간의 통합을 위한 최선의 길은 행동 변화에서 시작된다(추병완, 2014). 불가피성의 심리 기제가 작동하는 민족 간의 직접 접촉이 필요하다. 이때 민족 간의 접촉은 동등한 지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전제한다. 또한 경쟁적인 학교 분위기에서는 접촉이 증가할수록 긴장 또한 증가할 수 있다. 학생들이 상호의존하는 상황에서 적개심은 감소한다. 모든 학생들이 협조해야 하는 비상사태에서 적대감과 부정적 고정관념은 줄어들 수 있다. 경쟁적 분위기를 벗어나 협조적인 분위기를 형성할 때 학생들 간의 친밀감과 배려가 높아질 수 있다.

한편, 교육환경 및 교육과정의 차이가 탈북 청소년들의 도덕적 성격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음을 고려할 때, 탈북 청소년을 위한 두 고등학교의 교육활동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두 고등학교는 탈북 청소년을 위한 몇 가지 특색 교육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먼저, 탈북 청소년들이 독서활동을 통해 간접 경험의 폭을 넓히고, 학습 손실이나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학습하여 남한의 문화에 적응하는 것을 돕는다. 신체·심리 건강 프로그램을 통해 재북 및 탈북 과정에서 생긴 심신의 외상을 치유하고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게 한다. 자기주도학습 플래닝을 작성하게 하여 스스로 계획하고 공부해 본 경험이 없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에 맞게 스스로 공부하는 힘을 기르게 한다. 봉사활동을 통해 나눔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존감을 높이고 이웃과 사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갖게 한다. 이러한 교육 활동이 계획으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올바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분기별로 체크하여 수상하거나 장학금을 전달한다.

두 고등학교의 이러한 특성화 교육 활동은 탈북 청소년들이 한국 사회에 대한 기초 지식과 실생활에 필요한 기초 정보를 습득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남북한의 다양한 차이를 인지하고, 통일한국 준비에 필요한 역량을 신장시키는데 기여한다. 통일 시대의 주역이 될 남북한의 청소년들이 문화 간에 존재하는 도덕적 보편성과 다양성을 이해함으로써 서로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점을 해소할 때 지속 가능한 도덕 발달이 가능하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가. 단행본

김국현, 박보람 외, 『도덕과 평가의 9가지 레시피』(서울: 교육과학사, 2014).

김국현, 박보람, 이동욱, 문경호, 『중·고등학교 국민통합교육방안 심화 연구』(서울: 국민대 통합위원회, 2016).

문용린, 김주현, 박은실, 『다중지능과 진로의식 발달 연구: 초등학생을 중심으로』(서울: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도덕심리 연구실, 2003)

문용린, 『행복한 성장의 조건』(서울: 리더스북, 2011).

이기범 & M. C. Ashton, 『H팩터의 심리학 (H 팩터가 높은 인간과 낮은 인간의 성격 탐구)』 (서울: 문예출판사, 2013).

최보영 외, 『북한이탈 청소년 대상 상담개입 프로그램 개발-대인관계 증진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2).

한국민주주의연구소, 『탈북 청소년 대상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서울: 한국민주주의연구소, 2016).

나. 연구논문 등

교육부, 통일미래 맞춤형 인재 육성 2016년 탈북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 계획 발표, 2월 19일 보도자료 (2016).

김국현,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간의 가치갈등 유형과 가치교수모형”, 『통일정책연구』 14(2), (서울: 통일연구원, 2005).

김기년, 탁진국, “청소년 강점척도 개발 및 타당도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2(4), (서울: 한국심리학회, 2013).

김기년, 탁진국, “청소년 강점척도 개발 및 타당도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2(4), (서울: 한국심리학회, 2013).

김현아, “북한이탈주민의 품행장애 행동과 성격적 특성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12(1), (서울: 사회과학연구소, 2004).

김혜진 외, “청소년 도덕 지능 검사도구 타당화”, 『열린교육연구』 18, (서울: 열린교육학회, 2010).

문용린 김주현, “아동 및 청소년의 다중지능과 진로의식 발달연구”, 『인간발달연구』 12(2), (서울: 한국인간발달연구학회, 2005).

박병기 외, “한국 청소년의 도덕성 발달을 위한 측정 도구 표준화 방안”, 『한국윤리교육연구』 1, (서울: 한국윤리교육학회, 2010).

박보람, “도덕 행동의 작동기제로서 도덕적 성격”,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집 9호,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16).

박보람, “도덕적 성격 변인과 행동 유형”, 『윤리연구』 제114호, (서울: 한국윤리학회, 2017).

박보람, “도덕적 성격의 구조에 따른 도덕적 행동의 개인차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학 박사학위 논문』, (청원: 한국교원대학교, 2017).

손영미, “강숙정, 박정열, 여성 새터민의 성격유형에 따른 심리적응”,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0(1). (서울: 한국심리학회, 2014).

안체윤, 오미경, “성인용 자기성찰지능 척도 개발 연구”, 『인간발달연구』 20(1), (서울: 한국인간발달연구회, 2013).

양계민, 황순택, “입국초기 새터민 청소년의 심리적 건강상태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9(2),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워, 2008).

이우영, “김정은 체제 북한사회의 과제와 변화 전망”, 『통일정책연구』 21(1), (서울: 통일연구원, 2012).

이현주, “북한의 집단정체성과 한반도 미래세대 사회통합정체성”, 『아태연구』 23(2), (서울: 경히대학교아태지역연구원, 2016).

정소민, 윤현희, “탈북 청소년 교육 정책연구학교의 운영 실태 분석”, 『교육문화연구』 22(6), (청원: 학습자중심교육학회, 2016).

채정민, 이종한, “북한이탈주민의 개별성-관계성이 남한 내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4), (서울: 한국심리학회, 2004).

추병완, “통일교육에서 간문화 역량 개발”, 『윤리교육연구』 33, (서울: 윤리교육학회, 2014)

한국교육개발원, “북한이탈학생의 증가와 교육 과제” 『KEDI 통일교육포럼 자료집』(서울: 한국교육대발원, 2009).

한성열 외,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대인관계와 문화적응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3(2), (서울: 한국심리학회, 2007).

홍성찬, “북한의 『공산주의도덕』 교과서 분석을 통해서 본 북한 청소년의 인성교육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충북: 한국교원대학교, 2003)

2. 외국문헌

가. 단행본

Armstrong, T., *Multiple Intelligences in the Classroom (3rd edition)* (Alexandria: ASCD, 2009).

Seligman M. E., *Authentic happiness: Using the new positive psychology to realize your potential for lasting fulfillment* (New York: free Press, 2002).

Peterson C. & Seligman, M. E., *Character strengths and virtues: A handbook and classification (Vol. 1)*.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나. 번역본

M. Borba, 현혜진 역, 『건강한 사회인 존경받는 리더로 키우는 도덕 지능』, (서울: 한언, 2004)

H. Gardner, 문용린 역, 『다중지능:인간지능의 새로운 이해』, (서울:김영사 ,1999)

나. 연구논문 등

Blasi, Augusto., “Moral character: A psychological approach”, in: D. K. Lapsle & F. C. Power (eds.), *Character psychology and character education*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2005).

Cattell, R. B., “Theory of fluid and crystallized intelligence: A critical experimen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54-1(1963).

Cattell, Raymond B., “Theory of fluid and crystallized intelligence: A critical experimen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54-1(1963).

Cohen, Taya R. & Morse, Lily., “Moral character: What it is and what it does”,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34(2014).

Colby, Anne. & Damon, William., “The development of extraordinary moral commitment”, in: Killen, Melanie. & Hart, Daniel. (eds.), *Morality in everyday life: Developmental perspectives*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Fleeson, William., Furr R. Michael., Jayawickreme, Eranda., Meindl, Peter., Helzer Erik G., “Character: The Prospects for a Personality-Based Perspective on Morality”,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8-4(2014).

Hart, Daniel. & Fegley, Suzanne., “Prosocial behavior and caring in adolescence: Relations to self-understanding and social judgment”, *Child development*, 66-5(1995).

Helzer, Erik G., Furr, R. Michael., Hawkins, Ashley., Barranti, Maxwell., Blackie, Laura E. R. & Fleeson, William., “Agreement on the perception of moral character”,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40-12(2014).

Hill, Patrick L. & Roberts, Brent W., “Propositions for the study of moral personality development”,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9-6(2010).

Kagan, Jerome., “Human morality and temperament”,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51(January, 2005).

Kristjánsson, Kristján., “Selfhood, morality, and the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Theory & Psychology*, 22-5(2012).

Lapsley, Daniel K., and Hill, Patrick L., “The development of the moral personality”, in: Narvaez, Darcia. & Lapsley, Daniel K. (eds.), *Personality, identity, and character: Explorations in moral psycholog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Lapsley, Daniel. & Narvaez, Darcia., “The having, doing and being of moral personality”, *The philosophy and psychology of character and happiness*, 28(2014).

McAdams Dan P. & Pals Jennifer L., “A new Big Five: fundamental principles for an integrative science of personality”, *American psychologist*, 61-3(2006).

McAdams, Dan P., “The Moral Personality”, in: Narvaez, Darcia. & Lapsley, Daniel K. (eds.), *Moral Personality, Identity and Character: An Interdisciplinary Futur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McFerran, Brent., Aquino, Karl. & Duffy, Michelle., “How personality and moral identity relate to individuals’ ethical ideology”, *Business Ethics Quarterly*, 20-1(2010).

Narvaez, Darcia. & Lapsley, Daniel K., “Moral identity, moral functioning, and the development of moral character”, *Psychology of Learning and Motivation*, 50(2009).

Regan, Tom, "The Case for Animal Rights", in: Richard G. Botzler & Susan J. Amstrong (eds.),

Environmental Ethics: Divergence and Convergence (Boston: McGraw-Hill, 1998).

Reynolds, Scott J., "Moral attentiveness: Who pays attention to the moral aspects of lif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3-5(2008).

Sparks, John R. & Hunt, Shelby D., "Marketing researcher ethical sensitivity: Conceptualization, measurement, and exploratory investigation", *Journal of Marketing*, 62-2(1998).

Walker, Lawrence J. & Hennig, Karl H., "Differing conceptions of moral exemplarity: just, brave, and car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6-4(2004).

Walker, Lawrence J. & Pitts, Russell C., "Naturalistic conceptions of moral maturity", *Developmental psychology*, 34-3(1998).

Walker, Lawrence J., Frimer, Jeremy A. & Dunlop, William L., "Varieties of moral personality: Beyond the banality of heroism", *Journal of personality*, 78-3(2010).

부록1 - 도덕적 성격 특성 검사지

나의 도덕적 성격 강점 찾기
寻找自我道德性质上的优点

여러분의 응답은 도덕적 성격 강점을 발견하고 이해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本次调查是用于发现和了解大家道德性质上优点的资料。
설문은 6영역(1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영역은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问卷由6个领域(127个项目)构成, 以下每一个图各对应一个领域。
다음 문장을 읽고 자신의 행동과 일치하는 정도를 표시하면 됩니다.
读完下面的文章, 请选择与自己的行为程度一致的答案。
질문에 대한 응답은 설문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若您对问题作出回答将被视为同意参加此次问卷调查。
원하지 않을 경우 응답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若不愿意, 可不参与调查。

1. 성별 (남/여)
1。性别 (男 / 女)
2. 태어난 연도 ( )
2. 出生年月 ( )
3. 태어난 지역 (북한/남한/중국/기타)
3. 出生地 (北韩 / 南韩 / 中国 / 其他)
4. 중국에 살았던 기간 (0~1년/1~3년/3~5년/5~10년/10~15년/15~20년/20~25년)
4. 在中国生活的时间 (0~1年 / 1~3年 / 3~5年 / 5~10年 / 15~20年 / 20~25年)
5. 한국에 살았던 기간 (0~1년/1~3년/3~5년/5~10년/10~15년/15~20년/20~25년)
5. 在韩国生活的时间 (0~1年 / 1~3年 / 3~5年 / 5~10年 / 15~20年 / 20~25年)
6. 함께 살고 있는 가족 (할머니/할아버지/엄마/아빠/고모·이모·삼촌/형제·자매·사촌/친인척/이웃/기타)
6.住在一起的家人(奶奶、爷爷, 爸爸、妈妈、姨母、舅舅、叔叔, 兄弟, 姐妹, 表(兄弟姐妹)、其他亲戚、邻居、其他亲朋好友)
7. 종교 (종교 없음/기독교/천주교/불교/이슬람교/원불교/기타)
7. 宗教 (没有宗教 / 基督教 / 天主教 / 佛教 / 伊斯兰教 / 园佛教 / 其他)
8. 이메일 ( ) 응답결과를 발송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8. 电子邮件 ( ) 用于发送调查结果。

도덕지능 검사 (28문항)
道德智能 检查 (28选项)

1 = 전혀 그렇지 않다 / 2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3 = 중간정도 / 4 = 그런 편이다 / 5 = 매우 그렇다
1 = 絕對不是那樣 / 2 = 不太那样做 / 3 = 一般 / 4 = 大概那样 / 5 = 完全那样

1. 나는 친구의 얼굴 표정을 보면 친구의 기분을 정확하게 파악한다.
1. 我一看朋友的表情，就准确地知道朋友的情绪。
2. 나는 친구나 가족이 힘들어 할 때, 쉽게 알아차리고 위로한다.
2. 朋友或家人难过的时候，我很轻易的发觉并安慰他们。
3. 나는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을 보면, 함께 고통을 느끼고 슬퍼한다.
3. 我看到痛苦的人的话，同样感到痛苦并且难过。
4. 나는 부당하거나 불친절하게 대우받는 사람을 보면 걱정된다.
4. 我看到受到不公平或不友善的待遇的人，会担心。
5. 나는 잘못된 행동을 찾아내고 그것이 왜 나쁜지 설명할 수 있다.
5. 我会找出错误的行为，并可以解释为什么那是不好的。
6. 나는 옳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 발생할 결과를 안다.
6. 我做出不正确的行为的时候，知道将会发生什么样的结果。
7. 나는 올바른 행동을 알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다른 사람의 강요를 따르지 않는다.
7. 我知道什么是正确的行为，不听别人反对性的强求。
8. 나는 잘못된 행동을 옳은 행동으로 바꾸는 방법을 안다.
8. 我知道将错误行为更改为正确行为的方法。
9. 나는 어른의 도움 없이 스스로 욕구와 충동을 조절할 수 있다.
9. 我没有大人的帮助，也可以自己调节欲望和冲动。
10. 나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 불쑥 말하는 경우가 드물다.
10. 我在别人交谈时，不太插嘴。
11. 나는 이성을 잃고 갑작스럽게 화내는 경우가 거의 없다.
11. 我基本上没有失去理智，突然发火的情况。
12. 밀치거나 발로 차거나 맞붙어 싸우는 공격을 삼간다.
12. 我不喜欢动手动脚的攻击别人。
13. 나는 다른 사람을 헐뜯거나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13. 我不诋毁别人或说别人的坏话。
14. 나는 내 물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물건도 소중하게 다룬다.
14. 我不仅珍惜我的东西，还会珍惜别人的东西。
15. 나는 다른 사람의 방에 들어갈 때 노크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15. 我进入别人房间的时候会先敲门，尊重别人的隐私。
16. 나는 종교, 문화, 성에 상관없이 다른 사람을 공손하게 대한다.
16. 我不分宗教、文化、性别是怎样，都会以礼相待。

17. 나는 동물을 소중히 다루고 괴롭힘 당하는 사람들을 돌본다.
17. 我会珍惜小动物的生命，也会照顾被欺负的人。
18. 나는 다른 사람을 깔보면서 비웃거나 놀리지 않는다.
18. 我不会歧视也不会戏弄别人。
19. 나는 보답을 바라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준다.
19. 我不求回报的帮助需要帮助的人。
20. 나는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 주거나 슬픔을 달래 준다.
20. 我会用温暖的语言或行动去安慰别人。
21. 나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를 비웃거나 무시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21. 我不说嘲笑或小看他人的话。
22. 나는 문화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너그럽고 개방적이다.
22. 我不管文化差异，会宽容开放地对待别人。
23. 나는 다른 사람을 편견 없는 시각으로 바라본다.
23. 我用没有偏见视角去看别人。
24. 나는 다른 사람이 실수했을 경우, 타인을 쉽게 비난하지 않는다.
24. 我在别人失误的时候，不指责别人。
25. 나는 판단을 내리기 전에 모든 편의 의견을 경청한다.
25. 我在作出决定之前，会充分听取别人的意见。
26. 나는 여러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하기 위해 충분히 협의한다.
26. 我为了满足多数人的意愿，会先进行充分的商讨。
27. 나는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규칙을 변경하지 않으며 규칙을 지킨다.
27. 我不会为了一己私利改变规则，并会遵守规则。
28. 나는 사람을 평등하고 정당하게 대우하기 위해 그들의 권리를 생각한다.
28. 我为了平等对待别人，会先考虑他人的权利。

성격 검사 (25문항)
性格 检查 （25选项）

1 = 전혀 그렇지 않다 / 2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3 = 중간정도 / 4 = 그런 편이다 / 5 = 매우 그렇다
1 = 絕對不是那樣 / 2 = 不太那样做 / 3 = 一般 / 4 = 大概那样 / 5 = 完全那样

1. 미술관에 가는 것을 지루하게 느낀다.* (역코딩) (逆向编码)
1. 觉得去美术馆很无聊。
2. 전반적으로 내 자신에 대해 만족하는 편이다.
2. 总体来说我对自己比较满意。
3. 다른 나라의 역사와 정치를 배우는 것에 관심이 많다.
3. 对学习其他国家的历史和政治很感兴趣。
4. 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내 자신을 심하게 다그치는 편이다.
4. 为了完成自己定的目标尝尝催促自己。
5. 때때로 사소한 것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을 한다.
5. 有时候太过于担心微不足道的事情。
6. 나는 소설, 음악, 그림 등의 예술작품을 창조하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다.
6. 我比较喜欢创作像小说，音乐和绘画等这样的艺术作品。
7. 일을 할 때 사소한 부분에는 크게 신경을 안 쓰므로 실수가 잦은 편이다.*
7. 因为做事情的时候不太在意细节，所以常常失误。
8.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 때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꼭 필요하다.
8. 痛苦和难过的时候，我需要能安慰自己的人。
9. 어떤 일을 할 때, 나는 때때로 너무 무계획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9. 我有时候会因为计划没有安排好而遇到困难。
10.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혔더라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용서해주는 편이다.
10. 就算别人欺负我，我也毫不在意的原谅别人。
11. 나는 별로 인기가 없는 편이라고 느낀다.*
11. 总觉得我没人缘。
12. 위험한 상황에 처하면 다른 사람보다 무서움을 많이 탄다.
12. 遇到危险的处境时，总会比别人更感到害怕。
13. 단체에서 나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 의견을 적극적으로 말한다.
13. 在团体里我会不看别人的眼色，积极地说出自己的意见。
14. 내 의견이 다른 사람들과 다를 때 내 의견만을 고집하지 않는다.
14. 当我的意见不同于其他人的时候，我没有固执己见。
15. 새로운 환경에서 내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친구를 사귀는 것이다.
15. 在新的环境中，我最先做的事就是交朋友。
16. 행동하기 전에 깊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를 많이 저지른다.*
16. 由于一般在行动之前考虑不周，所以常常失误。

17.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화를 잘 내지 않는 편이다.
17. 我没有别人那么容易发火。
18.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 별로 생기가 없고 활동적이지 않다.*
18. 我没有别人有活力也不活跃。
19. 친한 사람과 오랫동안 떨어져 있어야 한다면 이별의 순간에 매우 슬픈 감정을 느낄 것이다.
19. 要长久的和亲近的人离别时，会感受到无比的悲伤。
20. 나는 예술적 또는 창의적 타입과는 거리가 멀다.*
20. 我与艺术或创意具有很大的距离。
21.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실수를 저질러도 나는 싫은 소리를 잘 하지 않는다.
21. 即使有人连续犯错，我也不太说讨厌别人的话。
22.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 처해도 공포에 질리지 않는다.*
22. 即使处在非常危急的关头也不会感到恐慌。
23. 철학을 얘기하는 것은 나에게 지루한 일이다.*
23. 谈论哲学对我来说是一件很无聊的事。
24. 나는 계획에 따라 행동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맘에 내키는 일을 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24. 比起按照计划行动，我更喜欢随心去做。
25. 누군가 내 의견이 틀렸다고 말하면, 나는 즉각 그 사람과 논쟁을 시작할 것이다.*
25. 如果谁说我的意见不对的话，我会立刻与他争论。

성격강점 검사 (48문항)
性格优点 检查 （48选项）

1 = 전혀 그렇지 않다 / 2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3 = 중간정도 / 4 = 그런 편이다 / 5 = 매우 그렇다
1 = 絕對不是那樣 / 2 = 不太那样做 / 3 = 一般 / 4 = 大概那样 / 5 = 完全那样

1. 어떤 일을 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방식을 찾는 걸 좋아한다.
1. 做事的时候喜欢寻找需要的新方式。
2. 내 친구들은 대부분 나보다 상상력이 뛰어나다. *
2. 我朋友的想象力大部分都比我强。
3. 언제나 세상에 대해 호기심이 많다.
3. 无论什么时候都总是对世界充满好奇。
4. 쉽게 싫증을 낸다. *
4. 容易感到厌倦
5. 판단력이 필요한 주제가 있을 때면 매우 이성적으로 사고한다.
5. 如果有需要判断力的主题的时候, 会很理性的思考。
6. 성급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
6. 有仓促判断的倾向。
7. 새로운 것을 배울 때 감격을 느낀다.
7. 学到新东西会觉得感概。
8. 박물관이나 다른 교육적 장소에 가본 적이 없다. *
8. 没去过博物馆或者其他教育场所。
9. 항상 곰곰이 생각하고 더 폭넓은 입장에서 볼 줄 안다.
9. 总是会仔细思考然后站在更多重的立场上看事情。
10. 내게 조언을 구하러 오는 사람은 거의 없다. *
10. 很少有人来找我征求意见。
11. 강한 위협을 무릅쓰고 내 주장을 지킬 때가 많다.
11. 我冒着强大的威胁, 会坚持我的主张。
12. 고통과 좌절 때문에 내 의지를 굽힐 때가 많다. *
12. 常常由于痛苦和挫折心灰意冷。
13. 한 번 시작한 일을 끝까지 해 낸다.
13. 一旦开始做一件事就会做到最后
14. 일을 할 때면 딴전을 피운다. *
14. 一要做事情就会转移话题。
15.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
15. 一定会遵守约定。
16. 친구들은 내게 솔직하게 말하는 법이 없다. *
16. 朋友们基本不跟我说实话。
17. 무슨 일을 하든 전력투구한다.

17. 做什么都全力以赴。
18. 의기소침 할 때가 많다. *
18. 常常感到意志消沉。
19. 어떤 성격의 단체에 가도 잘 적응할 수 있다.
19. 去什么性质的团体都能很好的适应。
20.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둔하다. *
20. 对他人的感情方面很迟钝。
21. 내 기분과 행복에 자기 일처럼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이 있다.
21. 我身边有把我的心情和幸福像自己的事情一样关心的人。
22. 다른 사람들이 베푸는 사랑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
22. 不能直接接受别人给予的爱。
23. 스스로 나서서 이웃을 도와준다.
23. 自己主动帮助别人。
24. 다른 사람들의 행운을 내 일처럼 좋아한 적이 거의 없다. *
24. 我几乎没有把别人的幸运当成自己事情一样高兴过。
25. 어떤 단체에 가입하면 최선을 다한다.
25. 一旦加入某团体，我就会尽最大努力。
26. 집단의 이익을 위해 내 개인의 이익을 희생할 생각이 없다. *
26. 我不想为了集体利益而牺牲自己的利益。
27. 어떤 사람에게든 똑같이 대한다.
27. 我对任何人都一视同仁。
28.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공정하게 대하기 힘들다. *
28. 我很难公正地对待我讨厌的人。
29. 일일이 참견하지 않고도 사람들이 단결하도록 이끄는 편이다.
29. 即使我不是每件事都干涉，也会引导人们团结。
30. 단체 활동을 이끌어 나가는데 소질이 없다. *
30. 我没有领导集体活动的天赋。
31. 과거에 지나간 것을 문제 삼지 않는다.
31. 我不会再提已经过去的事情。
32. 기어코 복수하려고 애쓰는 경향이 있다. *
32. 我有一定要报复的倾向。
33. 나의 능력과 성취뿐만 아니라 실수와 결점도 정확하게 이해한다.
33. 我不但了解自己的能力和成就，而且很明确地了解自己的缺点。
34. 스스로 한 일을 치켜세우는 편이다. *
34. 喜欢自卖自夸。
35. 다칠 위험이 있거나 나중에 후회할 일은 잘 하지 않는다.
35. 不怎么做可能会遇到危险或以后会后悔的事。
36. 나쁜 친구를 사귀거나 나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경우가 있다. *
36. 有时候交不好的朋友或者跟坏人在一起。
37. 내 욕구와 정서를 다스릴 줄 안다.

37. 我懂得要控制欲望和情绪。
38. 결심한 행동(예를 들어, 금연, 다이어트, 절약 등)을 오래 하지 못한다. *
38. 下定决心的行动（例如，戒烟、减肥、节约等）都坚持不了多久。
39. 예술 작품의 아름다움과 과학의 경이로움 등에 몹시 감격한 적이 있다.
39. 我被艺术作品的美和科学的震撼等感动过。
40. 평소에 아름다움과 전혀 무관하게 지낸다. *
40. 平时与美好毫不相关的过日子。
41.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고맙다고 말하는 편이다.
41. 哪怕是微不足道的事情，也会说谢谢。
42.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 거의 생각하지 않는 편이다. *
42. 几乎不在意我所得到的恩惠。
43. 대체로 긍정적인 측면에 관심을 갖고 보는 편이다.
43. 我大体上以积极的角度对待某事。
44.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철저한 계획을 세운 적이 거의 없다. *
44. 我几乎没有为我想做的事做过详细的计划.
45. 되도록 일과 놀이를 잘 배합한다.
45. 会尽量劳逸结合。
46. 우스갯소리를 거의 할 줄 모른다. *
46. 基本上不会说笑话。
47. 삶의 목적이 뚜렷한 편이다.
47. 生活的目的比较明确。
48. 사명감이 적은 편이다. *
48. 使命感不大。

자기성찰지능 척도 (16문항)
自省 检查 （16选项）

1 = 전혀 그렇지 않다 / 2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3 = 중간정도 / 4 = 그런 편이다 / 5 = 매우 그렇다 1 = 絕對不是那樣 / 2 = 不太那样做 / 3 = 一般 / 4 = 大概那样 / 5 = 完全那样

1. 나는 내가 기분이 좋아지거나 불쾌해질 때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1. 我知道自己心情好或者不快的原因。
2. 나는 내가 좋아서 하는 행동인지 억지로 하는 행동인지 잘 구분할 수 있다.
2. 我能区分一件事是因为自己是喜欢才去做的或还是勉强才去做的。
3. 나는 나의 감정 상태를 잘 구분할 수 있다.
3. 我能很清楚的区分我的情绪状态。
4. 나는 나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알 수 있다.
4. 我很清楚我自己的心情是怎样变化的。
5. 나는 삶의 목적과 방향을 갖고 있다.
5. 我有人生的目标和方向。
6. 나는 미래에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뚜렷한 신념이 있다.
6. 我有“将来应该要成为这样的人”的明确信念。
7. 나는 무엇을 하며 인생을 보낼지에 대한 확신이 있다.
7. 我确信我可以做什么来生活下去。
8. 나는 미래에 성취하고자 하는 삶의 장기적 목표에 대해서 생각한다.
8. 我想把未来的成就当成我生活中的长期目标。
9. 나는 흥분되었을 때 스스로 진정시킬 수 있다.
9. 我在兴奋的时候会让自己保持镇定。
10. 나는 화가 났을 때 스스로 화를 다스릴 수 있다.
10. 我要发火的时候可以控制住火气。
11. 나는 화가 날 상황을 알아차리고 화를 가라앉힐 방법을 찾을 수 있다.
11. 我能查察觉出会发火的情况并且能找到控制的方法。
12. 나는 상황에 맞게 생각이나 감정을 잘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다.
12. 我会根据情况来控制和调节自己的情绪。
13. 나는 일이 잘못되었을 때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생각한다.
13. 我在做错事的时候会想我为什么要那么做。
14. 나는 타인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나의 모습, 행동, 말들을 돌이켜 본다.
14. 我让别人感到受伤时，会回想自己当时的样子，行动和语言。
15. 나는 다른 사람한테 상처 받는 말을 들었을 때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돌이켜 본다.
15. 我听到别人让我我受伤的语言的时候，会回想自己是不是做错了什么。
16. 나는 다른 사람에게 실수를 했을 때 내가 했던 행동이 옳았는지 점검해 본다.
16. 我对别人有失误的时候会反省自己的行为是否正确。

사회적 바람직성 검사 (10문항)
社会可取性 检查 （10选项）

1 = 전혀 그렇지 않다 / 2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3 = 중간정도 / 4 = 그런 편이다 / 5 = 매우 그렇다
1 = 絕對不是那樣 / 2 = 不太那样做 / 3 = 一般 / 4 = 大概那样 / 5 = 完全那样

1. 나는 내가 한 행동에 대해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
1. 我对我自己做的事绝不后悔。
2. 나는 내 자신에 대해 항상 정직하다.
2. 我对自己问心无愧。
3. 나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실수가 없는 편이다.
3. 我做任何决定时都基本没什么失误。
4. 이때까지 내가 한 결정은 항상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
4. 我认为到现在为止我做的任何决定都是最好的选择。
5. 나의 언행에는 항상 흐트러짐이 없다.
5. 我的言行总是很端正。
6. 남의 도움을 얻기 위해 거짓말이나 마음에 없는 말을 한 적이 있다.
6. 为了得到别人的帮助，说过谎话或虚伪的话。
7. 손님이 그만 가주기를 바라면서도 붙잡는 척 한 경우가 있다.
7. 有想让客人走却假装挽留的情况。
8. 누가 나에게 일을 시키면 바쁜 척 할 때가 있다.
8. 别人指使我时，会偶尔装做很忙的样子。
9. 상대로부터 대접을 받고 싶어도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척 할 때가 있다.
9. 有想让对方对我有礼貌，表面上却假装不在意的时候。
10. 속으로는 자랑하고 싶지만 겉으로는 겸손하게 행동한다.
10. 内心很想炫耀，但表现出来很谦虚。